

문재인 대통령,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안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



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코

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 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안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할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칼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니 새삼 명어체순이니 어쩌니 할 여지가 없기에 재론하자면 지난 2010년 11월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국가적 망신을 떨었던 한국기자의 현주소가 지금도 거론되는 것은 왜일까.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폐막 연설을 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외신기자들을 제치고 개최국인 한국기자들에게 영광의 질문 권을 주었지만 꼴뚜기는 방아쇠가 되어 입도 뻥긋 못 하던 에피소드가 있었다. 한술 더떠 오바마가 통역까지 해주겠다고 하자 객석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직역을 하자면 너희 나라에 우리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는 기자가 없으니 통역까지 해주어야 되는 것이냐는 배려 깊은 비아냥이냐.

이때다 싶어 중국기자가 "아시아 대표로 질문하면 안 되겠느냐"며 영어로 나서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기자한테 질문한 것"이라며 권한을 유지해 주었고 이에 중국기자는 한국기자에게 "자신이 질문하면 안 되겠느냐"며 참작한 한국 기자들을 두 번 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대가 이 지경이 되어도 꼴뚜기는 방아쇠 마냥 질문 기회를 빼앗긴 한국기자들, 비스한 일은 약 10년이 지난 2021년 5월 28일 미국 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성 기자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여성 기자들은 손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정적이 흘렀고 다시 한국은 여성기자들이 없냐고 물으면서 성차별 논란까지 일었다. 기자의 질문에 남

녀가 전체를 필요하겠습니까? 외신들은 왜 한국 대통령이 굳이 여기자들 찾는지가 의아한 풍경으로 비춰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10년 전 영어 한마디 못해서 국제 망신을 떨었던 약망이다 다시 살아났다는 비하와 함께 어떤 이유든 소중한 기회를 잃어 버린 처신에 대해 대통령 수행 기자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현장에서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는 우리나라 사진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다짜기 언어맞는 일이 생기자 외신들의 반응은 마치 불구경하는 꼴이다.

이름 두고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외교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라며 "정상회담 수행 취재기자가 상대국 공안원에 두들겨 맞을 정도면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것이냐"며 항의를 표한 바 있다.

위의 3가지 사건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바 새삼 명어체순이니 할 여지가 없는 문체다.

괴정이야 어찌 됐든 질문 한번 못했고 자 국에서는 엄정 대탄한 기자들이 중국 가서 언어맞고 온 건 맹목한 사실이다.

언제나 미국갈 땐 영어를, 중국갈 땐 중국어를 기본은 할 줄 알아야 한다. 잘 하든 못 하든 어떤 성차별에 대한 불편함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든 윤호중 배우처

럼 유창하게 농담까지 하지 못 해도 현장에 동행했던 취재자라면 분위기에 파악은 당연했었을 것이고, 그러면 질문도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빛내 주고 국가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 모든 기자들이 그렇다.

아니다. 초등학교 영어 경연대회의 기초 수준으로 되어도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고 중·고등학교 영어 경연대회까지 계산한다면 한국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사킨다 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못난 사람일수록 같이 있는 동료들 망신시킨다는 말인데 그렇게 사람이 없었을까. 대체 사전에 동행 취재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도 없이 수행했다는 뜻인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한국기자들의 현주소, 지금도 전국 지역에서 소신껏 취재·보도에 기여 로컬리로서 충분한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신문들이 넘는다.

비록 중앙언론처럼 대단한 조명을 받거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지는 못 하지만 보도자료에 곱들여지지 않고 발로 뛰는 개팔기 기사로 지면을 채우는 한국의 꼴뚜기 언론들이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사킨다면 그망신 뉴스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국민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숙제가 있다. 비단 정치나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역소식을 지역신문만큼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매체는 없다.

전국을 쫓아다니는 지역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지역소식에 충실하는 언론매체가 살아남아야 중앙의 매체와 언론의 장단에 내용도 모르고 춤을 추고 덩달아 놀음이 중단될 수 있다.

물론 중앙 매체가 제 역할을 한다면야 금상첨화겠지만 이미 기득권의 안전한 환경에 길들여진 매체들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기자 각 개인의 취재 의지와 진실이 아무 제약이나 위선의 눈치 안 보고 가깝잖아 지면이나 방송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있다면야 다행이지만 한국 언론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투명하고 성장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언론의 균형적 발전이야말로 그 어떤 분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이름 걸치고 있는 권위주의적 기자들은 거침없이 숨어내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는 기자에게는 현실적인 지원과 행정적 협조는 물론 법률적 보호까지 뒤따라야 한다.

기자의 자질과 열정의 검증은 말이나 인맥 자랑으로 될 게 아니라 이미 걸려온 발자취만으로도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만큼 육성을 가라는 과정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도 유능한 취재자원을 육성하여 사회 전반의 소급 역할을 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역량/김근식

서울특별시,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에 스타트업 지원공간 '서울창업허브 월드' 개관

전세계 2억 명 이용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오픈...서울창업시설 3D로 구현

서울특별시가 국내 최초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 3D 가상공간 '메타버스'로 서울의 유망 스타트업 알리기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내에 '서울창업허브 월드'를 28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뜻한다.

'제페토'는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나만의 3D 아바타를 만들어 나이, 성별, 인종 등을 넘어 전 세계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창업허브 월드' 내부에는 서울의 우수 스타트업 64개와 서울시의 창업지원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전시관이 들어선다. 1인 미디어 방송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투자유치 등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열리는 컨퍼런스홀, 스타트업 오피스 같이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

업지원시설도 실제처럼 구현된다.

64개 기업은 서울창업허브(공덕·성수·창동), 서울창업성장센터, 서울핀테크랩, 양재 AI허브, 홍릉 바이오 허브 등 서울시 주요창업지원시설과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이다.

'제페토' 이용자가 누구나 자신의 아바타로 '서울창업허브 월드' 내부를 둘러보고, '서울창업허브 월드'를 찾는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프라인 설명회, 홈페이지 등 기존 전통매체를 통한 기업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산업 전반으로 확산 중인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스타트업 글로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실제로, 그룹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뮤직비디오를 메타버스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최초로 공개했고, 그룹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연 가상 팬사인회에는 4,600만 명이 다녀갔다. 여러 유명 패션브랜드들은 메타버스 플랫폼과 게임을 통해 신상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페토' 이용자뿐 아니라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창업허브 월드'를 소개하는 맵(공간) 투어를 진행하고, 다양한 개관 기념 이벤트도 연다.

개관 기념 이벤트로 3일 간 '서울창업허브 월드'를 방문해 미션을 완료한 이용자에게 '제페토' 내에서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증정한다.

한편, '메타버스'는 MZ세대와 10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주목받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메타버스 시장이 '25년 317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도 메타버스 플랫폼 같이 급변하는 IT·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박대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성장 위한 비대면 방식 지원은 필수적이다. 우리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판로확대,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현실세계를 넘어 메타버스라는 한발 앞선 마케팅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서울의 창업 생태계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김부겸 총리, "김포시민의 간절한 요구, 국토부에 뜻 전달"



27일 오후 정하영 김포시장과 시의회장, 지역 국회의원, 범대위 공동대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비롯한 참석자들은 김포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불균형, 불평등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안과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와 25만 명 이상의 범시민서명운동, 다양한 시민활동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설명하고 '저녁이 있는 삶' 등

김포시민들의 절박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전해 듣고 김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 중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 김포연장'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과 25만 명의 시민서명서를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를 기점으로 한 수도권 서부와 서울남부, 수도권 동부를 잇는 GTX-D 노선안과 서울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 의견수렴 절차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경 확정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코로나19 일일 1차 접종자 64만 명 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전국의 지정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74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27일 18시 기준으로 일일 접종자수(1차 접종 기준)가 64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3천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등 56.2만 명, 예방접종센터(265개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등 8.2만 명 등이 코로나19 1차 접종을 하여, 지난 4월 30일 일일 접종자수 최대치(30.7만 명)를 2배 이상 경신하였다.

추진단은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종 시작일을 기다려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예약하지 않은 어르신의 사전예약과 고령 예방접종에 가족과 주변의 관심을 당부하였고, 아울러 접종 받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추진단은 오늘부터 많은 분들의

Table with 4 columns: 구분, 합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Total 646,618 daily vaccinations.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 사항을 재차 당부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하여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상반응은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하루 정도 복용하고, 특히 젊은 연령층은 전신반응이 심할 수 있으니 진통해열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이낙연,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위해 중견기업수 2026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확대

26일 '청년 고용 확대 방안', 한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기회의 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5,400개인 중견기업 수를 2026년까지 1,600여개 늘린 7,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을 산업 정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6일 정태호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한 '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진단 및 청년 고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미관계는 안보동맹에서 벨류체인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한미간 경제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등 중심으로 광범위한 협력이 이뤄질 것이고, 우리 중견기업들에게도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업들로, 향후 한미 간 벨류체인 동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정책을 제시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며,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와 일자

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업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4년 동안 명목상 급여의 60%까지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증대 세제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신규 채용에 대해 장려금을 확대해서 1인당 연 1,00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방안을 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견기업이 늘면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면 국가 경제 지속 성장은 물론, 청년 실업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단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넘어 글로벌 벨류체인인의 조정에 따른 인력수급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경제 체제에 대비하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입법 노력도 약속했다. 그는 "지난번 중견기업연합회 방문 때

중견기업인들께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친환경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들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중산층이 두꺼워야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중견기업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일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일이 한국 경제 최우선 순위 투자"라며 "중견기업이 통 큰 신규 채용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신산업 분야에는 향후 10년간 5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견기업은 전체 고용의 5.5%인 149만명(2019년도)을 고용하고 있다.

최광수기자

이용호 의원, 선거법 1심 이어 2심도 무죄!

1·2심 무죄 판결은 검찰 무리한 기소 결과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선거법 등 2심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 개최 및 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난 1심에 이어 이날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먼저 "오직 진실된 사실관계와 법리에 입각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검찰의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애초에 억측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고발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두 차례 무죄판결로 검찰 기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설치되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 등에 대하여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하는 식으로 검찰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

야 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횡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평생 송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와 제 가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 것인지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찰을 향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 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고심의위는 현재 전국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24개청 모두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총 486회 개최된 바 있다.

2018년 1월 1일 대검 예규로 제정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1항에는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남출기자

전국 시도의회 2027 하계 U대회 충청권 유치 힘 모은다

2021년 4차 임시회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공동제안 건의안 채택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충청권 유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힘을 모은다.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는 26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에서 열린 2021년 제4차 임시회에서 2027 하계 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북과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 건의안은 U대회 유치를 위해 정부에 관련 승인 절차 단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대한체육회의 국내 후보 도시 확정 절차가 완료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국제행사 유치 승인을,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FISU의 개최지 선정 시기가 9월부터 시작되기에, 유치를 위해

선 승인 일정을 각각 6월과 9월 이전으로 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등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건의문에서 "그동안 충청권에선 국제종합경기대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U대회 유치는 560만 충청인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낙후된 충청권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이 번영을 세계에 알릴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개최지 선정 공식 일정 전 국내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의 지역대학 우선 지정 촉구 건의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 ▲혁



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 등 24개 안건

고정화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트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성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팩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www.yyg.go.kr

F O O D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도봉구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논의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컨벤션센터 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 주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가 각각 건강도시 법제화의 필요성과 국내의 사례, 건강도시법 제정의 방향 등을 발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운영위원회 대표, 토론자 등이 현장에 참석하고, 102개 회원도시를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도봉구



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건강도시의제는 글로벌 의제이면서도 지방의제적 성격을 갖는 이슈인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올해에 지방의제로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의

법제화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강도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 WHO 건강도시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HiAP(Health in All Policy)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절실하며, WHO가 규정한 건강도시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봉구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위원회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협의회 공동정책 부문에서 '2016년~2017년, 2019년 최우수상' 수상을, 일반정책 부문에서 '2018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19년부터는 "3355 동네방네 걷기 사업"을 구(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최광수/기자

은평그린모아모아,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은평구에서는 은평그린모아모아를 주제로 5월 24일부터 6월18일까지 '2021 은평그린모아모아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가신청 및 응모작품 접수를 받는다.

전국 19세 이상을 대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이미지를 담은 캐릭터를 디자인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분리배출의 효용과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정된 캐릭터 디자인을 은평그린모아모아 BI 제작업무에 활용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 은평그린모아모아를 알리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공모주제는 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은평그린모아모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 분야이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은평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모전 참가신청서를 다운받고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구민 온라인 선호조사 등 2단계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200만원) 1명 ▲우수상(50만원) 4명 ▲장려상(20만원) 5명 최대 10편을 선정하여 각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은평구는 자원순환 촉진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린뉴딜의 중요한 전략임을 강조해 왔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은평형 그린뉴딜이

바로 은평그린모아모아이다.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 혼합배출 방식이 선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음식물찌꺼기 등으로 오염되어 재활용품 가치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은평그린모아모아에서는 주민들의 통틀어 마을마다 정해진 10~20곳의 배출장소에서 지정된 요일과 시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8가지 품목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배출하여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이고, 별도의 선별 없이 수거한 상태로 바로 매각하여 처리비용도 줄이고 있다.

설치와 철거가 간편한 휴대용 분리수거함을 이용하여 수거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운영을 마친 후에는 철거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은 은평그린모아모아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그 가치를 홍보하는 캐릭터로 쓰일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의 무분별한 배출로 발생한 환경 위기를 올바른 분리배출과 같이 생활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해 극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함께 그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강동구, 온택트 소통 위해 카카오톡 '강동구청' 채널 개설

강동구가 코로나19 시대에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공식 채널 '강동구청'을 개설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바일 메신저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점유율이 높은 SNS 플랫폼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번 카카오톡 채널 개설을 통해 두 채널로 나뉘어 운영했던 '강동구 알림톡'과 '강동구청'을 하나의 채널로 통합해 구민의 정보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새로 선보인 강동구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는 구정 관련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채팅창에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강동구 지방세환급 등 온라인 민원창구와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백신 접종계획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기존 강동구 알림톡 회원인 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채널 개설 알림 친구톡을 발송했으며, 향후 채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채널 추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카카오톡 검색 창에서 '강동구청'을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며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 제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금천구, 안양천 횡단보도교 '금천한네교' 31일 개통!

금천구는 주민들의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독산1동과 분소지역을 잇는 길이 201m, 폭 4.5-15m의 '금천한네교'를 5월 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들은 독산1동 분소지역을 오갈 때 시흥대교를 이용해 돌아서 가거나, 평소 강우·강설시 보행안전의 위험성을 지적받아온 안양천 징검다리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구는 2017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예산 95억 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고,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현상 공모 거쳐 지난해 5월 공사에 착수했다.

구는 보도교가 개통되면 안양천, 경부선 철도 등으로 단절되어 멀리 돌아서 왕래해야만 했던 독산1동과 분소지역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인접해 있는 광명시와의 지역교류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교를 눈앞에 두고도 빙 둘러금천교나 독산교로 오가던 안전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도 기존보다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보행전용 다리 신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확보된다.

금천한네교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안양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공모를 통해 우리구의 상징인 은행나무를 형상화한 1주탑 비대칭 사장교 형식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채택했다.

교량 상부에는 휴식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고, 하천으로의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고려해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했다.

안양천의 자연경관과 횡단보도교의 조화를 고려한 야간조명 설치를 통해 창의적인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교량 바닥판에는 교량하부 하천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강화유리를 설치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마련했다.

한편, 구는 안양천보도교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표현 할 수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 지난 3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명칭공모를 실시했다. 주민 선호도조사 등을 통해 상위 3개안을 구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금천한네교'가 최종 선정되었다.

구 지명위원회는 '금천'이라는 지명도 안양천의 옛 명칭인 '한네'가 어우러져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금천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성을 잘 담았다고 평가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한네교는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양천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라며, "금천구심 개발로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안양천 휴식공간 이용 시 접근성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중랑구, 사가정역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해 지역경제 살린다!



중랑구가 오는 6월 사가정역 및 상봉동 일대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곳 모두 역세권에 유동인구가 많은 구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불법주차, 좁은 도로, 낡은 시설물 등으로 인해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구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민선7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정하고 2018년부터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 꾸러진 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구상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꼼꼼히 준비해왔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1·2번 출구 인근 먹자골목 등 210m는 '사가정51길 특화거리'로 탈바꿈한다. 불편한 가로시설물과 보도를 교체하고 전선 지중화, 열린 광장 조성 등으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사가정역 1번출구 인근에는 공동육아방, 공유주방 등이 포함된 마을활력소도 조성하여 오가는 사람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오는 8일 이곳에서 '중랑마실'을 개최해 주민들에게 특화거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중랑마실'은 구청장이 현장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이번이 73번째다.

'상봉동 먹자골목' 역시 변신을 꾀한다. 상봉동 먹자골목은 상봉역 인근 봉우제로33길 등 총 680m 길이 거리로, 보도폭을 넓히고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상징조형물과 야간경관조명 등으로 거리미관도 살린다.

두 곳 모두 올해말이면 공사를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점포주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두 곳은 구의 대표적인 상권인 만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집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역과 중화역 사이에 위치한 태릉시장 일대로 깔끔한 거리로 변신하고 있다. 구는 총 630m의 거리에게 10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정비, 전선 지중화, 보·차도 표장 공사 등을 실시중이다. 이번 사업으로 보행로가 2m에서 3m로 넓어져 공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이면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천구, 제10회 서울시농업박람회 개최



양천구는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안양천 자연학습장(신정동 871-2) 일대에서 '제10회 서울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시와 양천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서울광장에서 첫 번째 박람회가 시작되었으며, 양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네 번째로 서울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 전시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농업과 힐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안양천 자연학습장 일대에서 전시를 직접 관람할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 도시농업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도시농업정책과, 농부공방, 농업교실 등 '주제전 시판과 재료판, 키즈판, 힐링판으로 구성된 '팝다운지 전시', 그리고 농업기술

센터, 양천구 홍보관 등이 전시되며, 이 전시는 VR로 구현되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랜선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각종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및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인터넷 검색창 '서울도시농업박람회'를 검색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청 공원과복지과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박람회 10주년을 맞아 도시농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전망을 통해, 도시농업을 통한 정서적 치유, 지속 가능한 농업, 미래지향적인 도시농업을 보여 드리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면서 "양천구의 도시농업이 나아가는 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박람회에 많은 분이 참여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힐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인천서 개최



GTX-D(수도권 광역급행철도) Y자 노선 반영 재검토 등 전국 각 지역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김한중 전라남도의회 의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또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날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환영함과 동시에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GTX-D Y자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재검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소관 규칙 제정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서울) 등 29개의 안건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 보고, 전국 시·도 정책위원회 및 정책위원장협의회 구성 제안 등 6개 보고사항도 검토했다.

특히, 신은호 의장이 제출한 ‘GTX-D Y자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 김포와 검단·영종도 지역 출·퇴근 이용객들의 통근시간 단축과 함께 수도권지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교통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을 동시에 건설하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최시 종료 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함께 GTX-D Y자 노선의 추가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신은호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

가 진정한 지방분권 및 자치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더욱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인천은 현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친환경자재매립지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행사가 열리는 송도에는 모더나 백신의 위탁생산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 만큼 국내 수급의 가속도는 물론 인천이 세계 제1의 바이오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이자,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앞둔 만큼 자치분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전국의 시·도의회장협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한중 협의회 회장은 “지금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내년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오늘이 자리가 앞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안건들이 오고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을 맞이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나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장들이 있어 가능했다.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가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해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난 1991년 설립돼 시·도별 순서에 따라 개최되며, 지난 4월 제주에 이어 이달에는 인천에서 개최하게 됐다.

김중남/기자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백서' 발간 15개월 간 이어진 지하철 내 코로나 대응 노력 알려

서울교통공사가 작년 1월 코로나19 국내 확산 시작 후 현재까지 약 15개월 간 서울 지하철의 코로나 대응 노력을 담은 ‘코로나19 백서’를 이달 하순 발간한다.

백서에는 코로나19 관련 정보·통계·인포그래픽 등 기본적인 정보에 더해 공사가 수행한 대책·지하철 수송수요 영향 분석·자료·비상시 업무 연속성 계획·현재까지의 운영 실적 등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타 기관에서 참고 및 활용 가능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공사는 백서를 통해 ‘철저한 방역소독·차질 없는 수송 서비스’ 원칙 하에 감염병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했음을 강조했다. 서울시 첫 확진자 발생 직후 비상대책상황본부가 꾸려졌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실시간으로 총괄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재난안전대책본부(20. 2. 3.)’가 구성되었다. 이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20. 2. 23.)보다도 2주 이상 빠른 것이었다.

이후 역사와 전동차 등 지하철 시설물 방역소독을 대폭 강화하여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이를 바탕으로 확진자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동차와 지하철 역사에 특별 방역소독도 즉시 실시해 추가 감염확산 위험을 크게 줄였다.

이렇게 2020년 한 해 동안 방역

소독을 실시한 전동차의 누적 면적은 약 2만 3천㎡, 역사(지하철 1~8호선 291개 역) 누적 면적은 약 13만㎡에 이른다. 두 수치를 합하면 15만 3천㎡로, 서울시 면적(약 605㎢)의 약 240배에 달한다.

백서에는 매일 650만 명에 가까운 이용객들과 마주하는 공사 직원들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사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수많은 승객들과 직간접적으로 마주하는 지하철 운송 서비스의 특성 상 직원 1명의 감염이 이용객들에게로 집단 전파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담긴 결과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사 관계 직원(자회사 및 외부 협력회사 직원 포함, 약 2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선제적 선별검사를 총 4차례 시행했다는 것이다. 누계 9만 1천여 명(참여율 99.9%)이 검사를 받은 결과, 무중상감염자 41명을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열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합관제센터 직원과 승무 직원은 올 1월 20일부터 1주 단위로 샘플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에는 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 자가검사키트도 배포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비상 상황에도 지하철이 멈추는 일 없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장에 최적화된 ‘업무연속성 계획’도 동종기관 최초로 작년 3월부터 마련

해 시행하고 있음을 백서를 통해 알렸다.

계획에 따르면 직원 확진 시 감염 인지시점으로부터 7일 전까지 동선을 파악, 동선 상 직·간접 접촉자 전원에게 해당 직원의 근무지는 전체 폐쇄 및 추가 방역을 즉각 실시한다.

승무원 중 확진자가 발생 시에는 사전 확보된 대체 인력을 곧바로 배치해 평일 출근시간대(07:00~09:00)는 전 노선이 평소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이 외 시간대는 최소 60% 이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이 외 역무기술·차량지하철보안관 등 다른 분야도 곧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해 운영을 이어가는 대응책을 마련, 시행해 왔다.

이러한 지하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업무지속계획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서울시 타 투자·출연기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참고하는 모범 사례로 채택되었고, 세계 도시철도 연구단체(CoMET)에서도 우수 사례로 뽑혀 ‘아시아-태평양권 Lead Metro’에서 사례가 발표(2020.6.4.)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성과를 보였다.

공사는 발간한 백서를 공사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백서를 편찬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백서는 ‘시민의 실천력’, 즉 시민 여러분이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방역 대책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이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하철이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하철 안전체계도 더욱 공고히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인천 동구, 제 34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공직자 금연·건강부스’ 운영



인천 동구보건소는 오는 31일 ‘제 34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동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건강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본 행사는 공직자로서 금연에 대한 솔선수범과 건강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목표로 오는 6월 1일 동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연 및 건강에 관심있는 직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에게는 1:1 맞춤형 금연 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지급, 흡연의 위해성 및 금단증상 대처방법 교육, 금연 성공을 위한 지속적 추후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예방교육, 1:1 맞춤형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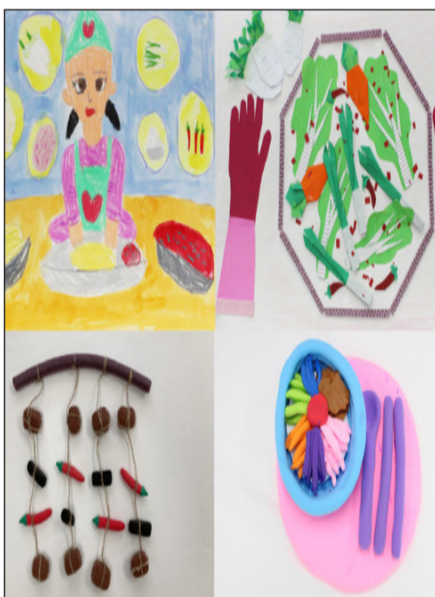
특히, 금연사업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사업, 절주 및 영양사업, 비만 예방사업과 사업별 1:1 건강상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소 건

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건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유주/기자

인천 남동구, ‘꼬마 아티스트!’ 어린이 식생활 미술대회 공모작 선정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비대면 공모한 ‘꼬마 아티스트! 어린이 식생활 미술대회’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미술대회는 ‘영양만점 우리나라 음식 자랑하기’를 주제로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63명이 참여했다.

그림, 클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양식으로 제출된 작품들은 완성도, 독창성, 예술성, 주제성, 전달력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그리기 2명, 만들기 2명), 우수상 4명(그리기 2명, 만들기 2명), 장려상 5명, 기타 10명이 수상했으며, 수상하지 못한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열심하심이 전달됐다.

원세복 남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이번 미술대회는 가족과 함께 미술활동을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고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대

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획했다.”며 “올바른 식습관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문화센터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호점 개소

내달 중 75세 이상 접종 마무리 계획... 1호점 접종자 대상으로 셔틀버스도 운행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27일 오류문화센터(경인로20가길 38)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호점을 연다.

구로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호선 오류동역 인근 오류문화센터에 예방접종센터 2호점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구로구는 구로구

민회관(가마산로25길 2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1호점을 열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2호점 접종 대상자는 개봉1·2동, 오류1·2동, 수궁동, 황동 등 6개 동 주민이며 신도림동, 구로1~5동, 가리봉동, 고척1·2동, 개봉3동 등 10개 동 주민은 기존처럼 1호점에서 접종한다.

접종은 예약자 센터 방문·접수, 예

진표 작성, 의사 예진, 접종, 이상반응 관찰순으로 진행된다.

접종이 끝난 어르신은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대기장소에서 15~30분가량 머물게 된다. 센터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의료진, 구급차 등이 대기하고 있다.

현재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75세 이상 대상자 접종이 진행 중이며, 27일부터는 가까운 위탁기관에서 만 60~74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의 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구로구는 접종 대상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동별 집결지부터 예방접종센터 1호점(구로구민회관)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45인승 버스 4대와 구로구자원봉사협력단원을 투입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내달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인천시 공원녹지 미래... 인천시민이 제안한다.

인천광역시시는 5월 27일 소래습지 생태공원 전시장에서 군·구별 시민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 61명이 참여하는 ‘랜선 푸른 시민참여단’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단은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래상과 기본방향을 담은 제안서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랜선 푸른 시민참여단’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과정 시민참여와 대중의 지혜 및 집단지성을 모으기 위해 공원·도시숲·산림분과로 구분해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했다.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확충,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발전의 정책방향과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푸른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통해 한남정맥과 해안습지, 갯벌 등 인천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간 공원녹지 서비스 불균형 및 생활권내 공원녹지

결핍지역의 증가,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위기 등의 문제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같이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의 미래가치와 계획을 담은 미래상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한남정맥과(S자 녹지축)과 해양거점을 잇는 공원녹지 체계의 구축과 ▲코로나 등 감염병과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 간 공원녹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녹색복지를 제공하는데 있다.

시는 푸른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미래상과 기본방향을 반영해 주민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10월말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시민제안서를 전달받은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위기로 공원녹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원녹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며 “푸른 시민참여단과 전문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랜선 푸른 시민참여단 토론회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미래상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주최기관	2021년 5월 13일~27일(1차 13일, 2차 20일, 3차 27일) 15시~18시
참석인원	총 61명(시민, 시민단체, 대학원생 40명, 전문인 12명, 공무원 9명)
회의장	2004를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회의

주최부서: 인천광역시(공공토목과)
시청소재: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정책연구소·이영호기념사업회 2층
문의처: 02-6460-5521, 02-412-1242

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가까이 있는 공원녹지,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대전시, 산업단지 악취 24시간 신속처리 단속강화 강진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6월부터 시·유성구·대덕구 합동, 북대전 악취 민원 상황실 운영

6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구간 정차시 단속구역 문자로 안내

대전시는 하절기 북대전 지역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24시간 악취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유성구 관평동 지역에 악취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냄새 영향이 심해지는 새벽과 야간 시간대 악취 민원 응대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대덕구 산업단지와 유성구 금고동 일원은 악취 배출원이 밀집돼 있어 연결해 있는 유성구 관평·용산·송강·봉산·구죽동 일대와 대덕구 목상·석봉·덕암동 일대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와 자치구는 2019년부터 환경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악취 합동상황반을 구성해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사업장을 순찰하며 매년 150여건의 악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의 악취 민원이 우려되는 사업장과 악취 유발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야간 악취순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악취로 인한 불편사

항이 있으면 곧 바로 악취 상황반이 현장에 출동할 예정"이라며, "하절기 악취피해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대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1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은 고정식 CCTV 4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문자를 받고도 계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의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승강장 주변 10m,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박정식 안전재난교통과장은 "우리 군 주요단속구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알림 서비스에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운전



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안내상담이 가능하다.

김장길/기자

거창군, 아파트 분양권 전매사기에 유의하세요!

화순군, 화물·여객 자동차·건설기계·밤샘 주차 일제 단속

거창군은 최근 부산, 창원, 포항 지역에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는 틈을 타 분양권 전매 사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대 군민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사기 수법은 위조한 신분증 사진과 당첨 사진을 제시하고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으로 매수자를 현혹시킨 후 가계약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외지에 거주 중이라 대면 거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경우 ARS 1382에 전화로 해 확인하면 되고,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청 이파인에서 확인하면 되지만, 무엇보다 분양권 당점 확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일명 '뺏다방'과 거래를 했을 시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 시 프리미엄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다운계약)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 ▲매도인은 거래금액의 5% 이내의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매수인은 과태료와 향후 1주밖에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현수 민원소통과장은 "분양권 전매 계약 시 분양권 당첨 여부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잘 확인하고, 등록

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하여 소중 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박태완 중구청장, 어린이집 특별방역 현장 점검

시흥시, 초·중·고등학교 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열린교실어린이집 찾아 코로나19 방역지침 확인...위기 극복 방역강화 강조



박태완 중구청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이어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방역 현장점검을 가졌다.

중구에 따르면 박태완 중구청장은 26일 오전 11시부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학생2길 4에 위치한 열린교실어린이집(원장 홍영준)을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현장점검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박태완 중구청장은 중구 지역 내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인 열린교실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강조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외부활동 자제 등 영유아간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울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사령관이 돼 어린이집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자와 교육교사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강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난 1일 학생새벽시장과 구역전시장에서, 6일 지역 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행보를 지속해 왔다.

김기현/기자

시흥시와 시흥시니어클럽 불법촬영 예방단 '누군가 보고 있어'는 5월부터 시흥시 관내 초·중·고 90교에 대해 불법촬영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시니어클럽 불법촬영 예방단은 분기별로 점검 일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화장실, 탈의실 등을 탐지 장비를 활용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중 빈번히 확인되고 있는 휴지를 이용해 임시로 막아놓은 화장실 구멍을 스티커로 꼼꼼히 막

아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흥시는 "시흥시니어클럽 불법촬영 예방단 '누군가 보고 있어'와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촬영 성범죄를 근절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에서는 민간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 서비스 및 자체 점검을 위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화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의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밤샘 주차 일제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이다. 지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나 주변에 대령 화물차 등이 밤샘 주차하면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공해·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될 경우 ▲화물·여객 자동차는 운행 정지 또는 30만 원 이하의 과징금 ▲건설기계는 최초 1회 과태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부터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밤샘 주차

단속 요청 민원이 많은 ▲부영 3차~만연초 도로 ▲부영 3차~전대병원 방향 도로 ▲부영 6차~수만리 도로 ▲부영 1차~청전아파트 도로 ▲제일초~일심리 도로 ▲광신아파트~대성아파트 도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천변 도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5일부터 6월 8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는 등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대전시 대덕경찰서장, 국가중요시설 테러대응태세 점검



박세석 대전대덕경찰서장은 5. 26. 국가중요시설인 중리취수장을 방문하여 테러대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전제 대전시민의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중리취수장에서 철저한 방호시설 관리 및 점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경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경찰은 테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출동태세 점검 및 연계순찰 강화 등 테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리취수장에서도 철저한 방호시설 관리 및 점검,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경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 과천혁신교육포럼 개최

과천혁신교육지구, 25일 2021년 제1차 과천혁신교육포럼 개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과천교육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1년 제1차 과천혁신교육포럼'을 25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혁신교육포럼은 지역 교육 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성장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다.

포럼은 경기혁신교육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계를 넘어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을 실현하고, 안양과천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으며, 4개 분과(▲혁신교육, ▲미래교육, ▲교육자치, ▲안심교육) 7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1부 「바람」세션에서는 구순란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의 '혁신교육포럼으로 여는 교육자치'를 주제로 한 기

조강연에 이어 '2021년 과천혁신교육포럼 운영'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2부 「희망」세션에서는 정신혜 과천중 교사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사례발표와 신주영 과천초 학부모의 신나는 교실에 담은 '가치(value)'에 대한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신나는 교실은 학생중심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과천 관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공간혁신 사업으로 과천시가 공사비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성화 교육장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아 안심하고 펼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출 지원하기 위해 과천시, 과천시의회,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올해 시작된 혁신교육지구 시즌III를 맞



아, 학교와 마을이 지역혁신교육포럼을 통해 교육협력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이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이 삶과 연계된 배움

안에서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원종균/기자

용인시, 기흥호수 수질개선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량 등 지원 필요

용인시장은 25일 기흥호수를 찾은 환경에 환경부 장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증량 등을 건의했다.

환경에 장관의 이번 방문은 기흥호수의 수질개선 현황 점검을 위해 김민기 시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민기 국회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원, 조희승 한강유역환경청장도 참석했다.

백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기흥호수 둘레길과 (가칭)물빛정원을 차례로 살펴보고 시와 환경부의 협력 방안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백군기 시장은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추가 설치, 하수처리시설 증량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환경에 장관은 "기흥호수의 수질개선은 용인시와 지역 정치인, 주민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김민기 의원은 "걷기 편한 둘레길과 물 맑은 기흥호수를 만들기 위해 용인 시민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환경에 환경부 장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흥호수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돼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에 134억원이 투입됐다. 그 결과 수질이 5등급에서 3등급까지 개선됐다.

시는 또 시민들이 기흥호수를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19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둘레길을 조성하고 선형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최근수/기자



평택시, '평택시농업생태원 공모사업' 2개소 선정 및 추진

경기평상 쉼터 및 도시농업공간조성 사업 선정



평택시농업생태원은 최근 경기도가 시행한 「경기평상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에 농업생태원 내 쉼터만들기 조성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4천8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해 2개소에 총 1억8백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평상은 생활 속 '쉼'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 공간에 벤치 등 휴게 시설물을 설치해 휴식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도시농업 공간조성은 공공기관의 실내 공간으로 '임면녹화'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에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평상 조성사업으로 평택시농업생태원 내 등나무 쉼터 및 다람쥐터널 주변에 조형퍼즐터 2개, 평벤치 4개, 그네퍼즐터 6개, 야외테이블세트 4개

를 설치해 잔디마당, 경관단지, 동물들과 어울린 그늘 쉼터를 만들고,

도시농업 공간조성으로 평택시농업생태원 내 농촌문화체험관에 임면녹화 및 실내정원을 조성해 다양한 교육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농업생태원을 찾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톨립과 유채 등 봄꽃 나들이로 시민의 힐링장소 역할을 톡톡히 하는 평택시농업생태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숨과 췌를 더했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의 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해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구리시, 외식창업 지원공간 '구리 공드린주방' 개관 준비 박차



구리시가 외식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구리 공드린주방(공유주방)'의 9월 개관을 앞두고 제1기 예비 입주자 50명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모집한다.

'구리 공드린주방'은 ▲7-9평의 배달형 주방 18실(한식형 16실, 중식형 2실) ▲교육형 주방 1실 ▲공유 병창·냉동창고 ▲부자재실 ▲위생전실 등을 갖추고 매년 선발된 입주자들을 위한 배달형 창업 공간으로 사용된다.

예비 입주자는 기본교육(이론교육 및 실습교육)과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입주자 18명을 선발하며 공유주방 1년간 사용(임대료50%감면), 사업고도화 컨설팅, 초기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예비 입주자를 위한 기본교육은 ▲'성공 창업의 비법'의 저자이자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 원장 이형석 대표 ▲전)쉐라톤워커히일 조리팀 총괄팀장 김주명 셰프 ▲쉐라톤워커히일 호텔 조리장 김순태 셰프 ▲요리연구가 토니오 셰프, ▲새턴즈소사이어티 김셋별 대표(전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위촉 팀장) 등 전문가 강의로 진행된다.

최만식/기자

교육내용은 ▲메뉴 및 브랜드 기획 ▲위생교육 ▲창업 관련 행정절차 ▲배달 판매의 기술 ▲운영 비법 ▲요리 전문가들의 맞춤형 팀 실습 등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드린주방의 배달형 외식 창업을 시작으로 푸드테크, 스마트그린 뉴딜과 연계된 각종 사업의 확장이 기대된다"며 "시의 청년예비 창업자를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과 경륜 있는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 2층 내 유휴공간에 공유주방 구축을 위해 작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 16억원(국비70%, 시비30%)을 확보해 리모델링하고,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29백만원(국비80%, 시비20%)의 운영비를 확보했다.

부천시, 펠릭 그림 그리기, 도전해보세요!

부천펠릭기념관, 6월 23일까지 펠릭 탄생 129주년 그림 공모

펠릭의 박애 정신을 이을 문화예술 공모전이 부천에서 열린다.

부천문화재단은 소설 「대지」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펠릭'(Pearl S. Buck) 탄생 129주년을 맞아 6월 23일까지 '펠릭 탄생 129주년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연다.

부천펠릭기념관은 해마다 펠릭 탄생일인 6월 26일을 기념해 '펠릭 탄생 그림그리기 대회'를 현장 개최 방식으로 열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공모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부천펠릭기념관과 전시 유물 ▲펠릭 문학 작품 ▲펠릭이 보인 인권 가치와 문화다양성 등이다. 지원 부문은 6~13세 어린이 대상의 '그림 그리기'와 14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등 2개다. 특히 올해 축전,

일러스트, 캐릭터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설로 청소년, 성인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혔다.

시상 규모는 총 41명으로 대상(펠릭상), 금상(누리상), 은상(나눔상), 장려상(마음상) 등 그림 그리기 부문 37명, 디지털 콘텐츠 부문 4명이다. 수상자는 7월 초 발표하고 상장과 상금, 수상 작품집을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박물관 홈페이지 또는 부천펠릭기념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펠릭은 1967년 부천시에서 '소사희망원'을 설립해 전장애아와 다문화 아동을 위해 헌신하는 등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아동복지에 힘썼다. 부천시는 2006년 펠릭의 헌신과 인간 존중 정신을 잇고자 소사희망원 자리에 부천펠릭기념관을 세웠다.

전순희/기자

주최
1. 부천펠릭기념관 내·외부 모듬과 전시유물
2. 펠릭의 문학 작품 내용
3. 펠릭의 사회사업과 인권운동, 문화다양성

주최 목적
- 발표일: 2021. 7. 7.(수)
- 발표장소: 부천시박물관메이저시-SIS 3층 및 기념관
- 대상: 6~13세 연령 어린이

참가자격
- 2021. 5. 24(화)~6. 26(토)

지원방법

부문	참가대상	선수명
그림그리기 부문	유치원·초·중·고·대학생 (6~13세 연령 어린이)	우편 접수
디지털콘텐츠 부문	청소년·성인 누구나	온라인 접수

제출규격

- 그림그리기 부문
 - 형식 도화지(27cm x 39cm), 크레타스화(화스텔, 역면필 용종 가능)
 - 부천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 출력 및 작성하여 그림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송추로 214번길 61 부천펠릭기념관 공모 및 접수용 포스트함에 우편접수
- 디지털콘텐츠 부문
 - 축전, 일러스트, 캐릭터 등 형식 제한 없음
 - 참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JPG, PNG, AI 등 디지털 파일을 첨부하여 전자우편 bcpearlpro@naver.com 접수

시상내역

구분	부문	인원(명)	주최	시상금	비고
그림그리기	대상	1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	300,000원	문학상장권 지급
		1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	200,000원	
	금상	2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	100,000원	
		15	부천펠릭기념관장상	30,000원	
	은상	2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	100,000원	
		15	부천펠릭기념관장상	30,000원	
디지털콘텐츠	대상	1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	500,000원	문학상장권 지급
	금상	1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	300,000원	
	은상	2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상	100,000원	

※ 심사기준 - 공모 시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 032-326-6441 (그림그리기 공모담당자)

시흥시 은행동, 중장년 1인가구 위한 건강음료 지원 협약식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홍남표)는 지난 5월 24일 관내 중장년층 독거남성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하기 위해, (주)에치와이(구 한국야쿠르트)는계점(점장 김관동)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1인 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음료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장년층의 고독사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강음료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중장년층(만50세~64세) 남성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

성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 배달사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즉시 모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홍남표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블루현상이 특히 사회적 지지체계가 거의 없는 중년 독거남성들의 일상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밀착형 돌봄체계를 마련해, 한 사람도 소외된 이웃 없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광명시, 광명구름산지구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대법원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환지 예정지 지정된 이후에 가능

광명시는 광명구름산지구 내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제기한 '조합원 모집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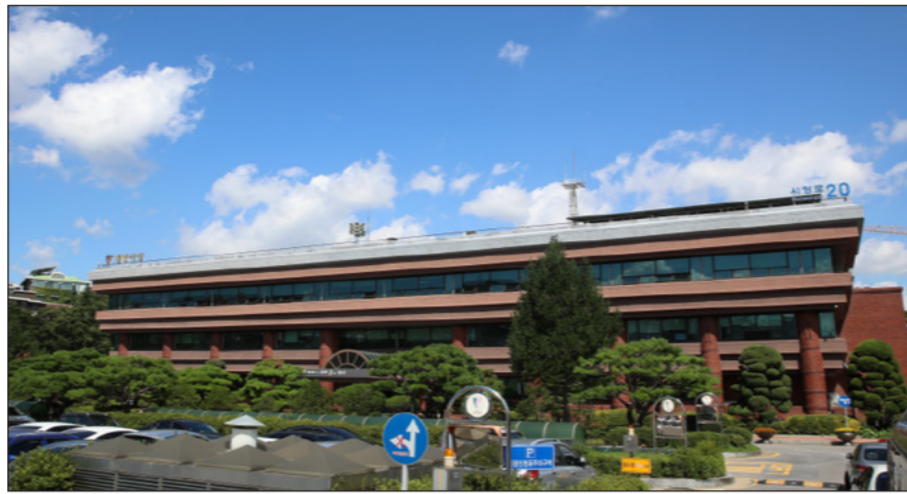
광명구름산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이용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건설예정지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건설예정지는 주택법에 의거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 추진위원회의 '법적 토지 관련서류 제출 불가

사유'로 2019년 4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불가 처분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9년 7월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6월, 1심(수원지방법원), 2021년 1월, 2심(수원고등법원)뿐만 아니라 올해 5월 13일 상고심(대법원)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행정청의 기속행위가 아닌 강학상 특허로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그 신고 내용을 심사한 다음 관련 법령이 정한 제한이나 공익상의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법적 해석상의 논란이 해결됐으며, 광명구름산지구 내



에 공동주택부지를 주택건설예정지로 이용할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요즘 지역주택조합 추진 시 대지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큰 경종을 울린 것 같다. 앞으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성남시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오는 6월 14일 개청



성남시는 분당구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새 지어 오는 6월 14일 개청한다.

기존의 낡고 협소했던 청사를 철거하고, 분당동 42번지 그 자리에 부지면적 1458㎡,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815㎡ 규모로 신축했다.

민원실 외에 프로그램실, 대강당, 회의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차량 35대 주차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섰다.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동안 인근 임대 건물에 있던 분당동 행정복지센터는 새 청사로 옮겨와 업무를 본다.

분당동은 2만6319명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 지역이다. 성남시 50개 동 평균 거주민 1만8657명보다 41%(7662명) 더 많아 행정·복지 수요도 많다.

다음 달부터 쾌적한 청사 환경에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욱기자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중부대학교 'JB지역사랑프로젝트' 연계 활동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중부대학교 'JB지역사랑프로젝트'와 연계 활동을 진행했다.

중부대학교 'JB지역사랑프로젝트'는 지역사회 봉사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양 필수 교과목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해결해나가며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함께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특화 교육과정이다.

이번 활동은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중 노인복지 분야로 현장 활동을 계획한 팀(갑4인4)과 연계하여 진행 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갑4인4팀의 '어우(어르신+우정사업본부)감사 엽서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더욱 소외감을 느끼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서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사전에 활동에 참여할 어르신 총 5명을 모집했고, 코로나19 대응체계 운영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활동을 진행했다. 4월 23일 학생 및 어르신들의 첫 만남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사연이 담긴 엽서 제작, 어르신의 사진을 활용한 우표 제작, 면 마스크 제작, 물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활동에 참여한 장OO 어르신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도 답답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내 얘기도 들어주니 너무 고맙다.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고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갑4인4팀의 한 학생은 "어르신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더 받

은 것이 많은 것 같다. 정말 다시 복지관에서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고 싶다.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영기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경기지역 4권역 자문위원 연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는 지난 2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1년 민주평통 경기지역 4권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직접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병행, 민주평통 경기지역 4권역 소속 8개 시군협의회 자문위원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연수는 서재원 협의회장의 개회사와 장영란 경기부시장의 격려사, 조학수 양주부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배기찬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미중 패권 경쟁과 평화·통일의 길'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신중호 통일연구원의 '최근 국제정세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한 전문강연 등이 진행됐다.

자문위원의 통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에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협의회의 정책건의안 발표와 함께 종언선언 4행시 낭독 및 퍼포먼스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민주평통 경기 4권역에는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이 소속돼



있다. 서재원 협의회장은 "한반도의 평화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염원하며 이번 연수가 자문위원들에게 평화통일을 위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학수 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문위원 연수행사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오늘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는 재외동포 모국어 도서기증,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등 다양한 민족 정체성 확립사업을 통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범국민적 통일인식을 고취시키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동희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상주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제 집에서 TV로 보세요!

상주시, 방구석 평생학습 TV 6월 방영 시작



전국 최초로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방구석 평생학습 TV가 6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 ◆ 운영: 2021. 6. 1.(화) ~ 12. 31.(금) (매일 10시/14시/19시/23시, 채널789번)
- ◆ 내용: 여행, 인문학, 웃음치료, 미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제공
- ◆ 대상: KT 올레 TV에 가입된 시민 누구나
- ◆ 문의: 상주시 평생학습원(054-537-5561)

● 주화: 상주시 ● 주관: 채널 789 (상주방송)

상주시는 오는 6월 1일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TV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방송은 여행자가 권다현 씨가 맡는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 찼찼이야'라는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강양수 교수의 '웃음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KBS 문화자문 위원인 안현배 강사의 '미술관에 간 인문학자'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캘리그라피, 마음 챙김 명상 등을 주제로 12월까지 강의가 이어진다.

방구석 평생학습 TV는 코로나19로 원활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시기에 집에서 편하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제작된다. 이는 상주시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전액 국비로 진행하게 되었다.

지난 4월부터 감사 공모와 심사를 거쳐 여행·인문학·미술 등의 분야에서 5명을 선발했고, 방송사인 채널 789와 협업을 5월부터 제작을 시작했다. 특히 모든 방송은 수화로 통역

도 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방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 미디어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방송을 분석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방구석 평생학습 TV는 KT 올레 TV에 가입된 상주시민이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7시·11시 총 4회에 걸쳐 채널 789번에서 방영된다.

평생학습원은 앞으로 제도적 기반과 예산 마련을 검토하는 등 상주시민 전체로 시청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탄탄한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방구석 평생학습 TV 방송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주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반식/기자

경북도, 2022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첫 발걸음

이철우 도지사,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문해 내년 정부예산 반영요청

이철우 도지사는 25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업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이 정부 부처에서 편성되는 시점으로, 기획재정부를 선제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취약한 지역현안을 상세히 설명하여 2022년도 국가예산에 지역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역현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과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심의관에게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을 이해 시키고 예산편성에 각별한 배려를 요청하였다.

먼저, 경북지역의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일만횡단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80억원 ▷중앙고속도로(읍내JC~의성IC) 확장 10억원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10억원 등 고속도로 신규 건설 반영과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50억

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2,702억원 등 철도사업 등을 건의하였으며,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산업 지역 유치에 ▷XR 융합산업생태계 구축 70억원 ▷산업단지특화형 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 55억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조성사업 50억원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100억원 ▷5G 기반 저탄소 마이크로그리드그린산단 시범사업 71억원 ▷스마트 로봇존 구축 60억원 ▷구조기반 감염병 신약개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50억원 등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심해 생명자원 R&DB센터 조성 15억원 ▷국립해양생물 종합원센터 건립 18억원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110억원을 건의하고,

체류형 생태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영양 밤하늘 정경 예코존 조성사업 4억원 ▷국립 한국소나무 연구센터 건립사업 13억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10억원과 지



역소의계계중 보료를 위한 ▷경북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5억원 등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는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심사가 끝나는 8월 중순까지 국비확보 TF팀인 '2022 국비모아 Dream단'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정부예산안에 지역사업 반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비는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한다"고 말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년도 국비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2022년도 국비예산에 지역사업을 각별히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기/기자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 세계에 알린다.

권영진 대구시장, 'P4G 정상회의 특별세션' 토론 참석

24일 오후 8시 'P4G 정상회의 특별세션'이 개최되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대표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 참석 또는 영상으로 참석해 '탄소중립'의 결의를 다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초대 대표로 24일 오후 8시부터 개최되는 2021 P4G 정상회의 특별세션에 참석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본 행사에는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과 한정에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했고, 독일 Bonn 시장, 덴마크 오르후스 시장 등 국외

인사는 영상으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 또는 영상으로 참석해 '탄소중립 실천 선언'으로 결의를 다졌으며,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의 의지와 토론을 담은 현장 영상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세계로 알려질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론에서 2020년 실천연대 발족 등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탄소중립 연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의 정책 확산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하동군, '초록빛 향기'하동 햇매실 출하 시작

하동군, 농협 수매 시작 작년과 비슷한 수준 거래...1217농가 연간 3274t 생산

청정 지리산과 섬진강 일원에서 생산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하동매실이 본격 출하하기 시작했다.

26일 하동군과 농협 하동연합사업단에 따르면 매실 주산지인 하동읍·악양·적량·횡천면 일원에서 햇매실 수확이 시작되면서 지난 24일 하동농협에서 올 들어 첫 수매를 실시했다.

첫 생산된 하동매실의 수매가격은 왕특대 기준으로 kg당 2000~23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매실 주산지 하동에서는 올해 하동읍을 비롯해 악양·적량·횡천면 일원의 1217농가가 273ha에서 연간 3274t의 매실을 생산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저온 등의 피해로 생산량이 줄었으나 올해는 생육상황이 양호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하동군은 전망했다.

하동매실은 일교차가 큰 지리적 특성과 섬진강의 맑은 물, 지리산의 좋은 토양의 영향으로 향이 좋고 영양이 풍부해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매실은 예로부터 천연건강식품으로 선조들이 약으로 사용해 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매실에 대한 많은 연



구로 식중독 예방, 피로회복, 체질 개선, 간장보호, 간 기능 향상은 물론 해독작용 및 소화불량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매실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 각종 무기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숙취해소, 피부미용에도 좋아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평

가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동매실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자 이상기후에 대비한 과원 관리,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지도 등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봉화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서명부 국토교통부 제출

봉화군은 충남, 충북, 경북 지역 12개 시·군 주민 300만 명의 염원이 담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태원 봉화부군수는 24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12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 박상돈 천안시장과 부대표 전찬걸 울진군수, 고윤환 문경시장, 장옥현 영주시장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수기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부는 짧은 추진기간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둬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높은 기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단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관계자와 만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통과지역 12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19대 대통령 공약,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부구간 반영,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부분적 예타면제 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의원사무관 장에서 연석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19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제4차 국가

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서태원 봉화 부군수는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국민 300만 명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6월 최종 확정 고시 전까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한반식/기자

하동군,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알린다

하동군, 26~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하동 특별관 및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하동군이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2021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1200년 역사의 하동 차(茶)를 주제로 한 하동 특별관을 운영하며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와 하동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토탈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 라이프스타일 전시회다.

디자인하우스와 코엑스가 주최하고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과 '덕서리'가 주관하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26일~30일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D홀 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가구를 비롯해 IT·가전, 키친&다이닝, 홈데코, 아웃도어, 인테리어, 텍스타일, 패션, 식품, 문구&서적 등 450개사가 2000부스를 운영하며 연인원 30만명의 관람을 예상하고 있다.

하동군은 이번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에 12개 부스를 통합한 하동 특별관과 2개 부스를 합친 명품 하동 농·특산물 홍보관을 설치·운영한다.

먼저 하동 특별관에서는 하동 차를 주제로 내년에 개최될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차 생산지로는 국내 처음으로 지정된 슬로시티 하동을 관람객에게 홍보한다.

또한 전년차발길·정금차발을 중심으로 한 하동 관광과 하동차 제품, 다기·다구, 소품 등 하동 차문화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의 전시를 통해 12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동 차의 우수성을 알린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관에서는 재첩국을 비롯해 우거지국, 이유식, 도라지배즙, 숯불유과, 김부자, 생강차, 요거트, 치즈 등 정정 지리산과 섬진강 일원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 등을 전시·판매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리빙산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브랜드와 관람객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내년 세계차엑스포 등 하동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오태완 의령군수, 취임 후 도지사 첫 면담

‘이건희 미술관’ 의령 유치 등 군 현안사업 3건 건의

오태완 의령군수는 25일 오전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김경수 도지사와 취임 후 첫 면담을 가졌고, 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오 군수는 도지사와 면담 이전에 먼저 도청 전 부서를 방문하여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김 지사와의 면담은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3건의 군의 현안사업에 대해 경남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첫째, 수도권 중심의 문화 과잉 완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건의, 둘째, 경남도 지역 혁신 신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국립국사사전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조선어학회 33명중 3명이 의령군 출신

으로, 인물 재조명 및 국어 보전·연구를 위해서라도 의령군에 건립해야 함을 내세웠으며, 셋째 ‘국도20호선 4차로 확장’은 의령군이 경남의 지리적 중심에 있음에도 철도역사와 고속도로 IC가 전무한 경남 유일의 자치단체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 부림일반산업단지조성과 연계하여 산업·관광의 중심축 역할을 도모하고 낙후된 중서부 내륙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였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오늘날 대도시 중심의 문화독점시대를, 문화절벽시대에 있는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분산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희 미술관’, ‘국립국사사전박물관’ 등 현대 문화시설이 의령에 건립되어야 한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김해시-LH, 이중굴착 방지 주민 불편 최소화

김해시는 전례없는 공공지원민간입대 사업지구 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협의로 이중굴착을 방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초 김해시는 6월 해당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상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었고 LH는 2022년 3월 오수관로 매설을 계획했다. 이처럼 개별 사업 시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까지 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로 김해시와 LH는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김해시가 LH에서 계획하는 오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탁 받아 상수관로와 오수관로를 통합 시공하기로 최근 결정해 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해시와 LH는 조만간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이번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전례 공공지원민간입대 공급촉진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87억원을 들여 전례지구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진행 중



이다. 이는 김해테크노밸리 일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입구에서부터 시례지구 입구까지 상수관로 4.37km를 매설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해당 사업지구 용수 공급을 위한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수관로와 LH의 오수관로 매설 구간이 중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과 도로 굴착에 따른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임주택 김해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성장하는 김해시의 수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 발생은 불가피하나 항상 다각도로 검토해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사천시, 항공 제조업 지원을 위한 심의회 개최

사천시가 지역의 주력산업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25일 밝혔다.

이날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는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도보다 감소한 관내 항공제조업체에 경상적 경비 2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제조업 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다.

관내 항공제조업체는 2019년 보잉 737Max 운항 중단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항공 제조업의 기반 유지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조사, 항공산업 기반유지 간담회와 항공 제조업 지원 심의를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이밖에 도시는 항공산업 생태계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업체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비해 복합재 부품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항공산업 지원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경근 사천항공미니클러스터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숙련된 기술인력 보호와 항공글로벌 가치사슬(GVC) 유지를 위해 항공 부품업체들은 최선을 다해왔다. 사천시가 항공 제조 산업을 위해 이렇게 앞장서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부산시, 괴정골목시장이 내 손으로! 실시간 소통·판매 이루어진다!

부산시는 내일(27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2회에 걸쳐 ‘괴정골목시장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란,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영상 전송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의미한다. 이번 괴정골목시장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전통시장 맞춤형 밀키트(meal kit) 상품 4종을 판매할 예정이며 ‘네이버쇼핑 라이브(LIVE)’ 채널로 생방송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비대면 판로개척’의 일환이다. 시는 라이브 커머스가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상품의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판매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방송에는 전문 진행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생방송을 시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퀴즈와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청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할인쿠폰, 모바일 쿠폰 등을 증정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생방송을 위해 구성된 맞춤형 밀키트 상품은 방송 시간과 관계 없이 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괴정골목매달’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괴정골목시장은 부산지역 최초로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시가 지원하는 ‘특성화시장 육성 공모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특화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 판로를 개척을 통한 자생력 회복을 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괴정골목시장이 온라인 판매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처음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부산지역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울산여객봉사회, 중구에 사랑의 보행보조기 50대 전달

울산여객봉사회(회장 임병철)가 울산 중구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올해로 4년째 ‘사랑의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

울산여객봉사회는 26일 오후 3시 30분 중구 청사 1층 중앙현관에서 ‘사랑의 보행보조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태완 중구청장과 임병철 울산여객봉사회장 및 회원, 김영석 울산여객(주)노동조합지부장, 김문걸 (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사랑의 보행보조기’ 전달은 중구 지역 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울산여객봉사회가 후원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보행보조기’는 스테인리스와 PVC 재질로 된 6.8kg 정도의 네 바퀴로 된 카트로, 어르신들이 손잡이를 잡고 지지하며 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손잡이는 어르신들의 키 등에 맞춰 890mm에서 950mm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안전반사판과 브레이크, 의자도 갖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10kg 상당을 적재할 수 있는 가방도 달려 있어 어르신들이 장을 보거나, 물건을 옮길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여객봉사회는 회원들이 심심일 반 모은 회비 500만원을 이용해 전체 50대를 구입했으며, 이와 함께 초코파이 50박스도 함께 준비했다.

중구는 이번에 전달된 보행보조기



를 (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중구 지역 내 저소득 결연 25세대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거동이 불편해 바깥출입이 어려운 어르신 25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18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울산여객봉사회는 2011년부터 장애인 생활 시설 목욕봉사 및 불나들이 지원활동, 집수리 봉사, 밀찬 나눔 등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55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50대 등 올해로 4년째 중구 지역 내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울산여객봉사회 임병철 회장은 “회

김기현기자

산청군, 금서면에 산불대응센터 들어선다

산청군은 금서면 일원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불대응센터는 산청IC 인근인 매촌리 225-4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약 2078㎡에 연면적 285㎡ 규모의 2층 건축물로 지어지며, 오는 10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건물 1층에는 산불진화차량 관리를 위한 차고와 진화장비 보관창고가 배치된다. 2층에는 진화대원 대기실과 화장실, 샤워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산불대응센터 완공 후 산불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더 확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센터 건립을 계기로 산불예방은 물론 산불 발생 시 조기진화를 위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산림재해로부터 지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산불진화대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괴정골목매달 온라인 박람회

N쇼핑 LIVE X 괴정골목시장

5/27 (목) 오전 11시 / 오후 7시

괴정골목시장 전통시장형 밀키트 상품 출시!

오전 11:00 / 오후 7:00 방송

행복한상세트 이더리얼소스고기진품 4인기준 30,000원	고기에 빠진날 한도새민 4인기준 29,000원
달달방구석 부부세트 올이더리얼 2인기준 22,000원	달콤 디저트세트 2-3인기준 15,000원

특별 혜택

- 01 2만원 이상 구매시 무제한 쿠폰
- 02 4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증정
- 03 구매고객 전용 특별 이벤트
- 04 방송 중 라이브 쿠폰 이벤트

1 N쇼핑 LIVE 시청 중 구매
2 N쇼핑 LIVE 시청 중 구매
3 괴정골목매달

5/27 주중 - 28일 휴무
5/28 - 29 - 30 주중 - 31일 휴무

전북도 송지사 'P4G 서울녹색미래 정상회의' 특별세션 참석

새만금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추진 방향, 계획 설명

송하진 도지사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앞서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녹색미래 주간(5월 24일 ~ 29일) 첫날 특별세션에 참석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은 한정에 환경부 장관, 전혜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의장,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대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와 더불어 환경문제, 자치단체 및 기관 간의 협력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별세션에 앞서 열린 탄소중립 선언 퍼포먼스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해 대면-비대면으로 2050 탄소중립 선언문에 서명했다.

퍼포먼스는 참여자가 서명한 테블릿을 중앙 모형제작물에 부착하면 동시에 환경위기 시계가 9:47→7:49로 움직이게 됨으로써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와 의지를 담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모두가 뜻을 모아 실천해야 할 필수적 사안이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월 30일~31일)는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P4G 회원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기업 대표 및 학계 등이 참석해 개최된다.

김승일/기자

"엘로우시티 장성 여행... 관광두레와 함께해요"

장성군·한국관광공사가, 25일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체결

장성군과 한국관광공사가 25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관광두레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내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지역주민 가운데 관광두레피디(PD, 프로듀서)를 선발해 주민 사업체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장성군은 올해 초 '2021년 관광두레' 신규지역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성군은 ▲관광두레피디 활동 지원 ▲관광두레사업 관련 행정지원 ▲홍보 지원 등을 펼치게 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피디 인력 지원 ▲주민사업체 역량 강화를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 황룡강과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편백숲을 보유한 장성군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면서 "지역의 특색을 잘 아는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두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는 장성군청,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홍근/기자

정읍시 유진섭 시장, 2022년 국가 예산 확보 '광폭 행보'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방문, 주요 사업 국비 반영 적극 건의

유진섭 시장이 2022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24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 활동을 펼쳤다.

이날 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중훈 기획조정실장,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을 만나 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가족전염병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통합 가족방역센터 구축사업(100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건의했다.

이후,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과의 현안부 교부세과장을 만나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상수해 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핵심사업에 대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내외 정지권, 출향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하은/기자

완도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시동

청정 환경·기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건강 증진 기여

완도군은 5월 25일 해양치유산업의 기반 시설인 해양기후치유센터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된 해양기후치유센터는 12억 원을 투입, 지난해 9월 착공하여 6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해양기후치유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371㎡ 규모로 다목적실과 데이터룸, 탈의실, 물품 보관실 등을 갖췄다. 앞으로 신지 명사십리의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하는 해변 노르딕워킹, 요가 등 다양하고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야외에서 운영했으나 향후 기상변화에 상관없이 해양기후치유센터에서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3월 31일 착공한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에서는 신지 명사십리에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등을 조성하고, 약산에는 해안치유의 숲과 연계한 해양치유체험센터 건립,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을 조성하여 완도 전역을 해양치유산업화 단지로 거점화하는 데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준공식에서 축사를 통해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치유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미래 신산업을 이야기할 때 해양치유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활력이 완도에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사업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남원시, 맞춤형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입학식 개최

국제한식문화재단과 손잡고 창업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다

남원시가 (재)국제한식문화재단과 손잡고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남원시 맞춤형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교육과정을 신설, 지난 5월 25일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추진하는 밀키트 창업교육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언택트 사업으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각자의 창업아이템에 맞게 전문가들이 컨설팅해주는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김부각', '가정간편식'에 이어 3년째 창업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번 교육은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7월말까지 진행하며 밀키트 조리, 외식서비스 마케팅 등부터 회계 관련 교육까지 창업에 필



요한 기본 교육과 밀키트 메뉴 개발을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는 교육 수료 후 교육생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개별 컨설팅은 물론 재료비 등 일부 창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출과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과 가공 유통과정에서의 신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체계적인 창업자 육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익산서, 경찰 선도프로그램 '희망동행교실' 운영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희망동행교실'을 진행하였다.

'희망동행교실'은 학교전담경찰관과 외부 청소년 전문기관 강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설문지를 통해 대상 청소년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이다.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선도하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 가·피해자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회복적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양현식 여성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소규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전라남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최우수

중기부 평가서 '혁신도약특화' 최고... '창업허브' 역할 특출

전라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20년 사업실적 성과평가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혁신, 도약, 특화 등 3개 항목에서 최우수, 투자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여수시에 문을 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남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전국단위 기관 중 최고 창업실적 달성과 유니콘 기업 배출, 인재 육성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혁신 분야에선 전남의 부족한 창업기반과 수요 속에서 지난해 164명의 신규창업자를 배출해 전국 단일기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등 지역 '창업허브' 활을 특출히 하고 있다. 전남도의 미래발전 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창업사업을 비롯해 창업 디딤돌사업, 임주보육 등 3개 자체 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비창업패키지', '여수시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 등 정부·지자체 창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약 분야에선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과 창업 의지 확인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전남도의 지원으로 구축한 창업플랫폼인 '전남드림창업'을 통해 전남 32개 창업지원기관, 22개 시군과 유기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창업자 발굴에 활용하고 있다.

전남도와 센터의 과감한 정책 선택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변화를 통해 센터는 지난해 보육기업 669건 발굴, 멘토풀 150명 확대, 창업자 성장지원 135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화 분야에선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농수산물 국내외 판로지원과 수도권 관광객 유치 실적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남지역 농수산물 기업 지원과 관광 판로에 팔을 걷어붙여 우수상품 품평회와 스타트업 판로 지원,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 GS홈쇼핑과 협업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결과다.

지난해 136건 425억 원의 국내 농수산물 판로지원과, 80건 1천425만 달러의 해외 농수산물 수출지원을 달성했다. 관광부문에선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자유여행, 레저상품을 출시, 수도권 관광객 1만 7천854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전남의 투자생



태계 상황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지난해 4월 전남 제1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 농업회사법인(㈜기쁨농원, ㈜코바코, ㈜레오바이오, ㈜포스리젠 등 도내 우수 스타트업 4개사에 총 2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투자 보육기업 중 유니콘 기업도 탄생했다. 화순의 향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박셀바이오)가 주인공이다. 전남대 의대 교수진이 창업한 이 회사는 지난해 6

장흥군, 용산 공공일자리 참여자 "약초공원을 책임진다"

용산면은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윤주 주변 공원 및 약초공원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참여자의 만족도 상승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던 약초공원을 조경 관련 경험이 있는 공공일자리 참여 인력을 투입하여 나뭇가지 전정으로 수형을 바로 잡고,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했다.

용산면은 "다시 찾고 싶은 약초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공원 내 잡초를 제거하고, 폐목은 환경 친화적인 자원 처리를 위해 산림휴양과에서 지원해 준 파쇄기로

퇴비화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이번 사업의 참여로 조경 관련 지식이 약초공원에서 활용될지는 몰랐다"며 "하반기에도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도 찾고 가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시영 용산면장은 "이미 조성된 공원의 사후관리를 공공일자리와 연계해 추진함과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효과를 얻으면 좋겠다"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깨끗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장길기자



김영안기자

함평군 이상의 군수, 내년도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 총력

이상의 전남 함평군수가 중앙부처를 찾아 내년도 군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함평군은 25일 "이상의 함평군수가 지난 24-26일까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을 찾아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등 국비 반영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생활 SOC 사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에 대해 연차적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 각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가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은 ▲농촌협약 제도 도입 건의(213

억 원) ▲함평군 실내수영장 건립지원(30억 원) ▲월야면 실내체육관 건립지원(10억 원) ▲함평군 스마트상수도 구축지원(15억 원) ▲함평군 보훈회관 건립지원(5억 원) ▲동함평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설 조성사업(10억 원) ▲곤봉산-수산봉 짚라인 조성사업(25억 원) ▲생활권내 숲길조성·관리사업(8억 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국·도비 건의액은 316억 원이다.

이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재정 여건이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로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여수시,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모' 선정 "안전에 한 발 더"

여수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1년 5G 기반 디지털트윈 시설물안전 공공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트윈'이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현실의 실제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twin)와 같이 동일하게 구현하고 시설물 안정성을 실시간 예측해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에 활용하는 4차산업 기술이다.

여수시를 포함한 4개 지자체와 4개 전문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정되었으며, 과기부는 국비 57억, 참여업체 14억 등 71억여 원을 투입해 4개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친다.

여수시는 예울마루가 선정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똑같은 건물 내·외부 가상환경을 실시간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효

율 최적화 및 환경 관리는 물론 붕괴, 화재, 지진 또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예측한다.

또 상황발생 시 건물 내 이동인구 위치 정보, 방재설비 현황, 최적의 대피경로 등을 모바일이나 앱을 통해 제공하는 미래형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실증한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적용할 4차산업 핵심기술 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련 사업 참여나 국비확보 기회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민선7기 들어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도비 지원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12억),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20억), 무선마을방송 구축사업(35



억) 등을 추진하며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이남출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을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요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충북콘텐츠코리아랩·위메프, 온라인 시장 공략 목표로 출정

6월 10일까지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공모

국내 대표 e커머스 기업 위메프와 손잡은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이, 문화콘텐츠의 온라인 시장 공략을 목표로 출정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관하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이, 26일부터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공모에 들어간다.

오는 6월 10일까지 접수하는 이번 공모는 최근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이 e커머스 기업 위메프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산실로, 온라인 시장 진출을 꿈꾸는 지역의 기업과 창작자들을 위해 기획됐다.

모집대상은 온라인 판매 가능한 문화상품을 보유한 도내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창작자로, >충북과 연관된 콘텐츠나 별도 스토리텔링을 보유한 상품 >생활·디자인·캐릭터를 포함한 자체 아이디어 상품 등 2개 분야다.

상품성과 유통·판매, 기업역량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8개 기업 또는 창작자(팀)를 선정하며, 선정

된 기업 또는 창작자에게는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상품등록, 페이지 운영방법 등 입점 관련 기본교육부터 전문MD의 컨설팅, 판촉 프로모션 및 별도 기획전까지 위메프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사항이 지원된다.

충북콘텐츠코리아랩은 “코로나19로 가속화 된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고 지역의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활로를 마련하고자 이번 지원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위메프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문화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온라인마켓 입점을 희망하는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는 오는 6월 10일 18시까지 충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충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또는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괴산군, 축분처리 효율화 추진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충북 괴산군이 자연순환농업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현재 괴산군에서 연간 발생하는 21만톤의 축분 중 50%가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있으며, 관내 퇴비업체의 축분수거율은 12%로 관내 위탁처리 물량 10만톤 중 2만5천톤에 불과하다.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양계농가와 일부 한우농가에서 관내 퇴비업체에 축분분뇨를 수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수거비용, 왕겨함유량 과다 등을 이유로 수거를 꺼리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3월 퇴비부속도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들이 많아 축분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군은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18일 최낙현 부군수 주재 하에 축산과, 유기농정책과,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 축산단체, 농민단체, 이장협의회, 퇴비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분처리 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2024년까지 관내 퇴비업체의 관내 가축분뇨 수거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축수산과에서는 퇴비공장에 분뇨수거용 암롤박스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계획 중이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축분 수거·운송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유기농정책과에서는 퇴비공장의 라인증설 및 적재공간 확보를 위한 현대화시설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퇴비업체, 축산농가, 이장협의회 등과 MOU 체결로 가축분뇨 수거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경종농가의 관내 퇴비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인해 값싼 화학비료의 유혹을 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신 쌀전업농이나 축산영농단체법인과 연계하는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해, 향후에는 거점별 빗집수거와 퇴비살포로 이어지는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 이는 토양의 유기함량을 현재의 1.8%(전국평균 0.78%)에서 5%로 늘려, 밥맛을 좋게 하는 것은 물론, 땅의 지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유기농업의 기본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 경종농가, 퇴비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축사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릉시,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강릉시-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간 협약

강릉시는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과 26일 11시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유천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은 김한근 강릉시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고동수 조합장, 지시환 수석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은 유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강릉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릉시에서는 지상 6층 300면 규모의 주차타워(홍제동 1028-1)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및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을 총괄하며, 준공 이후 강릉시에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통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여 최적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여, 유천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가 다양

한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 공영주차타워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은 민·관이 함께 지역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장은 “강릉시민들과 농협 고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강릉발전을 위해 강릉시 행정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삼척시, 다음달 4일까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는다.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522가구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1회 50만원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했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배타복합서비스금 등 4차 재난지

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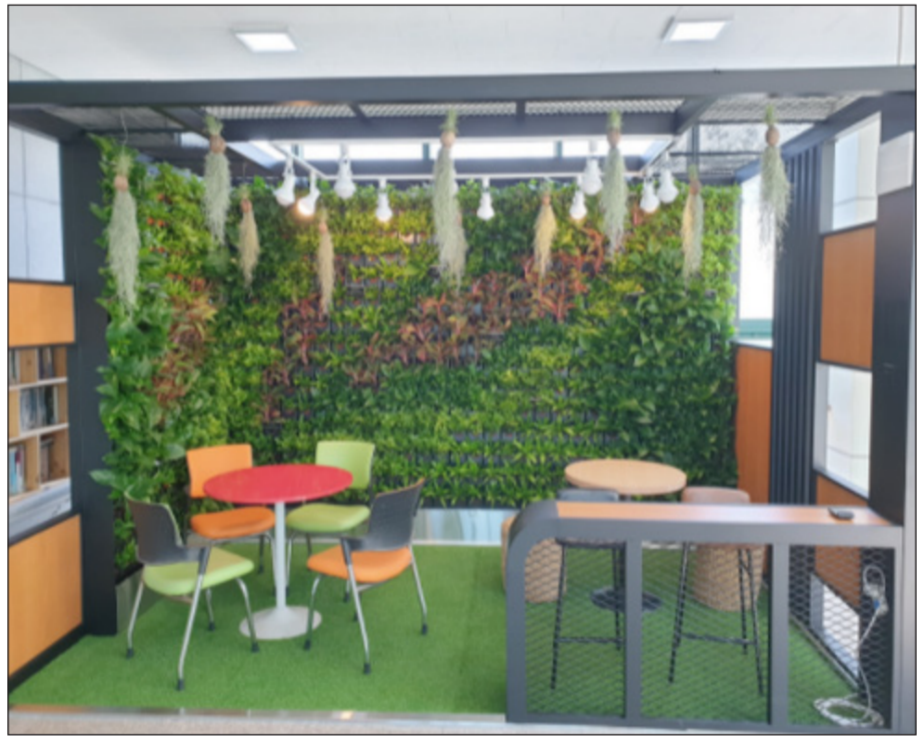
아울러, 농·어·임업인 소규모농가 등 배우자(30만원)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는 차액 20만원을 지급한다.

삼척시는 접수 마감 후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여부, 제외대상 등을 심사, 확인한 후 6월~7월 중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 문자,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 되면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원기자

아산시, 실내에서 만나는 녹색심터 '스마트가든' 3개소 조성



아산시가 9000만원(국비 50%)을 들여 아산경찰서, 경찰수사연구원에 식물 자동화 관리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가든(실내정원)' 3개소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실내 공기정화 식물과 스마트 기술을 결합시켜 정원의 치유 및 감상 효과를 실내 공간으로 확장한 정원 조성사업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온도 및 습도, 공기정화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정원이 주는 치유, 휴식 효과는 이미 연구로 입증되고 있으며 한국정원

디자인학회에서 2017~2019년 수행한 도시생활인을 위한 치유·휴식·관상용 정원 연구개발자료에 의하면 긴장, 우울, 분노, 피곤, 혼란, 스트레스 수치 모두 정원 체류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사계절 푸른 식물에서 나오는 쾌적한 공기를 통해 경찰서 직원, 민원인들이 잠시나마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시설 등의 실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마트가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및 산업단지 입주 기관 등에 스마트가든 실내정원을 조성하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재은기자

당진 신평면,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컨설팅 추진



신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면회의실 2층에서 마을복지계획 수립 1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했다.

마을복지계획 수립 컨설팅은 그동안 추진한 복지사업 및 지역여건 분석과 개방형 면장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협의체에서 발굴한 특화사업에서 ▲복지맵 제작 ▲사랑의 우유 나눔지원사업 ▲갯간나눔터 ▲경력단절 여성·어르신 기본교육 ▲다함께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으로 진행했으며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일반시민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컨설팅 강사는 남부사회복지관(부장 신윤호)의 마을복지계획 복지리더로 구성된 그 동안의 마을 복

지사업을 컨설팅을 통해 되돌아보고 복지역량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복순)는 “최근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영역이 커지는 만큼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기환 면장은 “마을복지계획 수립은 민·관이 상생하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라며 “컨설팅을 통해 다함께 행복한 신평 만들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가정의 달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기여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가정의 달 유공 기관 포상에 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표창은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한 가족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가족 분야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시기에 가족 사랑의 날,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 사업 등을 비대면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가정 놀이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긴급돌봄을 실시함과 더불어 전화 상담을 통한 꾸준한 관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소통 및 생활 정보 지원을 도맡아왔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일일 자가 체크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창재 김천시 부시장은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김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 환경과 사회흐름에 맞춰 맞춤형 가족정책을 추진해 우리시에 건강한 가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2021년도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원 선출

협의회장에 황성 최현식 지역협의회장 연임



강원도교육청은 25일 오후 4시,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8개 시·군 중 17개 시·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회장이 참석하여 2021년도 임원으로 △회장 최현식(횡성), △수석부회장 공진길(삼척), △내무부회장 전영태(고성), △외무부회장 원석연(양구), △감사 정연범(강릉), 최창배(영월)을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민병희 교육감은 5월 도협의회 임기를 마치는 길기수 전(前)춘천협의회장, 박문근 전(前)원주협의회장, 이주호 전(前)양양협의회장, 이법원 전(前)철원협의회장, 박상만 전(前)인제협의회장에게 교육감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총회에서는 △학교교복 지원사업 현황,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 방안, △학교급식 지원현황 보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번에 선출된 최현식 회장(성남초 학교운영위원장)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및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제1기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최현식 회장은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교육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강원교육 발전과 인재육성은 물론 학교운영의 장의성 실현과 발전방안 연구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팀, '반정아 팀원, 부산식약청장 표창 수상'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팀 반정아 팀원이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식약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반정아 팀원은 2014년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원 시기부터 근무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

매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순회 방문하며 시설 맞춤형 현장 지도, 식단 요구도 조사를 통한 영유아 맞춤형 식단 개발, 센터 급식표에 대한 표준 조리법을 구축하였다. 어린이와 원장·교사·조리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양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와 교구를 개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반정아 팀원은 "지역 특색을 고려

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보다 나은 위생·안전·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인 만큼 면역 강화 관련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으며 센터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재식)는 2014년부터 관내 어린이들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사)대한영양사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센터는 식약처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제시 관내 100인 이하 어린이집 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 및 어린이 식생활 행동 개선 유도를 위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

강영훈/기자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 인정받아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은 25일 강남구의회 5층 의정실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회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김현정 의원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과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

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으며 많은 지역 민원 해결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동시에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동희/기자



대전 중구의회, 법사랑 대전지역장학회 장학생 격려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5월 24일 의정실에서 법사랑 대전지역장학회에서 수여하는 장학금 수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남은지 학생은(신일여고 3학년) 국가대표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나 선수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훈련에 매진하였고,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지역사회 위상을 높이고 있다.

법사랑 대전지역장학회는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억원의 장학금을 품행이 단정하고 모교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타 학생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장학생은 중구의회가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였다.

김연수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우리 지역사회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중구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구미시청 볼링팀 제23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단체전 짝쓸이

종합우승, 2인조·3인조·5인조 우승, 개인종합 우승(김진주)



구미시청 볼링팀이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상주월드컵볼링장에서 개최된 제23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 실업볼링대회에서 개인종합과 단체전 3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종합우승을 달성하였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첫 대회로 전국 실업팀 소속 3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구미시청 볼링팀은 개인종합을 비롯한 2인조, 3인조, 5인조 등 단체전 우승과 함께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2012년 창단한 볼링팀은 박현 감독의 탁월한 지도하에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 한별 선수와 2021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된 김진주, 정정운 선수 등 6명의 선수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제35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3인조 1위, 슈퍼볼링 2020년 대회-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 전국 최강팀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5월 28일부터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에서 치러지는 39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중별 볼링선수권대회 대비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동식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각종 대회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한 훈련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선수단을 격려하며, 다가오는 제59회 경북도민체전과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스포츠 도시 구미의 위상을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궁영/기자

VR로 실감나게 만나는서울시청하늘광장...5명작가온라인전시

도시의 탄생과 소멸, 인공과 자연의 공존 등... 서울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 탐색

서울시가 '온라인 하늘광장 갤러리'를 통해 '2020 하늘광장 갤러리 공모 선정작' 전시 5건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지속 가능성, 기후환경 등 현대 도시 '서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매년 전시 작가를 공모하여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신청사 개청 이후 시민들이 청사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늘광장 갤러리'는 서울시 청사 본관 8층에 위치한 220㎡ 규모의 전문 전시공간이자 서울광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2014년부터 시민 작품 공모를 통해 매년 5건의 전시를 개최하며 시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나해에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기획자 이장로, 작가 정혜숙, 장용선, 구지은, 김잔디 등 다섯 명(팀)의 작품을 선정했지만,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시를 개최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중단되었던 '2020년 하늘광장 갤러리 공모 선정작' 전시를 온라인 전시로 전환하고, 다섯 개 전시를 지난해 11월부터 순차 공개했다.

'온라인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VR 전시는 3D 심도 센싱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촬영 방법을 통해 마치 전시장을 직접 둘러 보듯 화면 속 공간을 이동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다섯 팀의 전시는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안전한 도시', '숨 쉬는 도시' 등 서울시가 제시하는 연계 주제를 바탕으로 도시의 생태와 문화, 서울의 역사와 미래를 탐색했다.

전시에 참여한 기획자와 작가들은 한국의 동시대 미술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다. 특히 하늘광장 갤러리 전시장의 공간 특성을 극대화하는 설치미술 작품이 다수 선정되어 그 실감성이 돋보인다.

전시 작가들은 설치미술뿐만 아니라 회화,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각자가 바라본 도시 서울의 모습을 펼쳐 보였다.

이장로 기획자가 기획하고 서희원, 오승경, 이영후, 이지훈, 허담 작가가 참여한 '도시의 우리'는 복잡다단한 문화의 집결지이자 생존의 장으로서 현대 도시의 모습을 표현했다.

정혜숙 작가의 개인전 '언 세라믹'은 전통 도자기의 견고한 형태 이면에 존재하는 가변적인 시간성과 물질성을 탐구한다.

장용선 작가는 전시 '박제풍경'에서 재초된 풀과 캐스팅한 시멘트 벽돌을 재료로 도시와 자연의 공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구지은 작가의 '물집도시 프로젝트'는 동시대 도시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심리적 오염과 개인의 고립을 관찰한다.

도시 주변부, 낡고 오래된 장소들의 기이한 분위기와 인상을 그려 온 김잔디 작가는 전시 '콘크리트 비가'에서 창신동의 옛 채색장 돌산 풍경을 담은 신작을 발표했다.



전시는 '하늘광장 갤러리'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관람할 수 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전시가 장기간 연기되었음에도 작가들이 최선을 다해 다채롭고 우수한 작품을 선보

였다. 온라인 전시를 통해 청사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감상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순창군, 충훈불멸비재건립해 일제 흔적 지운다

다음달 6일 현충일 맞춰 제막식 거행



순창군이 일본식 흔적이 남아있던 충훈비를 재건립해 일제잔재 청산에 나섰다. 군은 다음달 6일인 현충일에 맞춰 순창제일고등학교 내에 국가 현충시설인 충훈불멸비를 재건립해 제막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순창군 충훈불멸비는 6.25전쟁 당시 전사한 이 고장 출신 전몰용사와 민간인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참전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9년 11월 10일 주민들의 성금으로 건립되었다.

하지만 충훈불멸비의 건립 양식이 일본식 '충훈비(忠魂碑)'를 본떠 만들었다는 민간인 제보가 있어 군은 지난 1월 전북동부보훈지청과 광주광역시 일제잔재조사위원회 등에 문의했다. 그 결과 양 기관으로부터 "순창군의 충훈불멸비 건립 형태는 일본식 충훈비와 일치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 1차 추경예산에 사업비 2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최근 충훈불멸비 교체를 진행했다.

일본식 충훈비는 비석의 끝이 뾰족한 사각형 뿔 형태를 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며, 일본의 전사자 묘지나 신사 등에 많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대 사회교육과 연구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일본은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위해 전사자를 추모하는 사각형 뿔 모양의 충훈비나 탑을 전국 곳곳에 세워 참배를 강요했다고 전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영령들을 기리는 국가 지정 현충시설이 일본식 충훈비로 모형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1959년 건립 당시, 일제강점기 동안 보아왔던 탑의 형태를 아무 생각없이 주민들이 모방하여 건립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순창군수로서 그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이번에 일본식 충훈불멸비를 재건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충훈비 등 호국영령을 기리는 중요시설에 일본식 잔재가 남아있다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한국의 전통방식으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김승일기자

서울도서관, 헌책 팔고 헌책 사자... 온라인 나눔의 장 '한 평 책방'

독립서점, 인기 작가·유튜버 헌책도 판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 가능

서울도서관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헌책 공유시장 '한 평 책방'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자신의 헌책을 판매하고, 체계적인 헌책방·인기 작가·유튜버 등의 헌책을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이어져 온 '한 평 시민 책시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헌책팔기&교환하기' 신청은 5월 27일(목)~6월 9일(수), '구글폼 신청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헌책사기'는 6월 17일(목)~6월 30일(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입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헌책 판매자, 구매자가 되는 '비대면 헌책 공유마켓'으로 운영된다. '헌책팔기&교환하기' 기간 동안 시민들은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중한 헌책을 권당 5,000원에 판매하거나 다른 책으로 교환하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글폼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 평 책방 운영사무국'으로 본인의 헌책을 보내면 된다.

시민 판매자를 통해 모아진 헌책들은 일주일 간의 꼼꼼한 검수 작업과 '한 평 책방'만의 특별한 포장 작업을 거쳐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체계적 헌책방거리'의 헌책방 15개소와 특색 있는 독립서점, 베스트셀러 작가, 인기 유튜버 등 헌책 판매자로 참여한다. 헌책방·독립서점 운영자, 작가, 유튜버가 추천하는 보물 같은 헌책도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객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계적 헌책방거리'의 헌책방 15개소와 독립서점 5개소에서 총 300권의 헌책 판매 신청을 받아 판매하며, 각 독립서점별 특색을 살린 북큐레이팅도 만날 수 있다.

또한 북유튜버(book+youtuber) '겨울서점'과 베스트셀러 작가 '정문성', SNS 감성작가 '새벽세시' 등도 특별 판매자로 함께 한다.



시민, 헌책방, 독립서점, 작가, 유튜버 등 다양한 판매자들로부터 모인 소중한 헌책들은 '한 평 책방'만의 특별한 패키지로 포장되어 테마별 '블라인드 북'으로 만들어진다. 6월 17일(목)~30일(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테마별 블라인드 북'은 판매자, 책 제목, 저자를 공개하지 않고, 각 테마에 맞는 책을 모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구매 후 포장을 풀 때까지 어떤 책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 궁금증과 흥미를 자극한다. 이번 블라인드 북의 테마는 '읽으면 OO해지는 책'으로 '몽클, 잔잔, 흠뻑, 딱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테마를 고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랜덤 선택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 '한 평 책방'은 독립서점

'이후북스'와 협력·운영한다. '이후북스'는 독립출판물, 소규모 출판사의 책 등을 판매하는 동네책방이다.

'한 평 책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서울도서관', '한 평 책방'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 평 책방' 운영사무국 또는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로 연락하면 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이번 '한 평 책방'을 통해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며, 독서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헌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 헌책방거리'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순천시, 순천형 창극공연 '낙안읍성 김빈길 장군' 개최

상설 1회 공연은 5월 30일 오후 3시

순천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낙안읍성 내 동헌 마당에서 '낙안읍성 김빈길 장군'창극 공연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추진한다.

창극 '낙안읍성 김빈길 장군'은 이번 1회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총 5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유튜브 채널 '순천시 낙안읍성 지원사업소'를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

김빈길 장군은 낙안 출신으로서 순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낙안읍성을 최초로 축성해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며, 오랫동안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잊혀진 영웅이었다.

이번 공연은 김빈길 장군의 생애를 소재로 낙안읍성 축성과 왜구 토벌전을 지휘하는 등 애민정신이 극에 반영되어 한편의 서사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처음 관람하는 관객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게 구성되었다.

창극을 총괄 지휘하는 정갑균 예술감독은 순천출신으로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



술감독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오페라 나비부인, 한국창극 100주년 기념작 등 200여편을 연출하였다. 이번 공연에서 김빈길 장군 역을 맡은 명창 이재영은 고흥 출신으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였고, 이외에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우

수한 인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으로 낙안읍성과 함께 김빈길 장군이 순천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천의 역사 인물을 발굴하고 널리 발굴하고 널리 현창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시흥시 2021 경기도 문화의 날 가정의 달 특별뮤지컬 '두들팝' 공연 개최

시흥시는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으로 '가정의 달 특별 뮤지컬 '두들팝'을 온라인 무료 공연으로 개최한다.

'두들팝'은 손 그림과 스크린 아트의 만남, 풍성하고 다양한 라이브 악기 연주와 미술활동을 접목해 흥미를 유발한다.

두 주인공 우기와 부기가 만든 낙서들이 악사들의 라이브 연주와 다양한 음향 효과, 절묘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오브제들과 함께해, 상상한대로 이루어지는 놀이의 세계로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성 높은 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은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생태문화도시 시흥 유튜브' 채



널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흥시의 아동들과 가족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즐겁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고, 심리적으로 치유되길 희망한다"며 "생태문화도시 시흥 유튜브를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수기자

충청남도, 제조업 취업자 코로나19 이후 첫 증가세

4월 기준 도내 취업자 120만 3000명...고용률 63.6% '전국 3위'

충남도 고용률이 지난 2월 전국 평균을 웃돌며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 달 전국 3위의 고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도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월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달 말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120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7만 3000명 대비 3만 명(2.5%) 늘어난 규모다.

남성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1.7%), 여성은 1만 8000명(3.8%)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증가 인원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 5000명(6.7% 증가) △농업·임업·어업 2만 2000명(13.1%) △제조업 1만 1000명(4.2%) △건설업 5000명(6.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

월부터 매달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으나 지난 3월 감소 폭을 크게 줄이고 지난 달 증가세로 돌아섰다.

4월 고용률은 63.6%로 전년 동월(62.3%) 대비 1.3%p 증가해 제주(68.7%), 전남(64.4%)에 이어 전국 시도 중 3위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도 전년 동월(67.5%)에 비해 0.9%p 늘어난 68.4%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달 임금근로자 총 81만 4000명 가운데 상용근로자 수가 59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만 3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 수는 4만 7000명으로 9000명 줄어 고용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4월 4만 3000명 대비 1만 명 줄어든 3만 3000명으로 집계돼 실업률 2.6%를 기록, 전년 동월(3.5%) 대비 0.9%p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전국 5위였던 고용률이 이번에 3위까지 올라



선 것과 도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직업 훈련, 중

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기초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고용률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서울시, 최대 30% 저렴한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농부의 시장' 40회 열린다

26일(수), 전국 65개 시군 110여 농가의 건강한 먹거리 직거래, 도심 장터 열어



서울시는 전국 65개 시·군 110여 농가에게는 판로가 되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을 5월 26일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개장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선해 추천한 건강한 농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다.

2021년 농부의 시장은 '농부의 진심'을 주제로 농부들의 정성과 노력의 산물인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와 함께 나누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교류하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로 운영된다.

2012년부터 운영한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지역 농부들과 서울시민들이 소통하는 장터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구매할 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 장터로 운영해왔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없었던 장터를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직거래로 연결하여 새로운 판로개척과 지속가능성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2021년 농부의 시장은 매월(혹서기 제외) 1·3·5주 수·목요일 서울어린이대공원, 2·4주 금·토요일은 마포구 DMC, 4·6주 금·토요일은 만리동 광장에서 총 3곳에서 진행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연중 40회의 '농부의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농부의 시장에는 전국 시군구를 통해 추천받은 65개 시·군,

110여개 농가가 참여한다. 참여농가의 절반이 신규로 선정되어 기존 농부의 시장을 찾았던 고객들에게 더욱 새로워진 농부의 시장을 예고하고 있다.

제철 농산물, 컬러푸드 모음전 등 직접 재배한 제철 농특산물 기획전이 준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농가가 참여해 운영하는 생활용 화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부의 시장 개장 시 행사장 사전 방역, 전자출입명부 작성,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시장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한다. 현장에 모든 판매농가와 방문하는 소비자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시식·시음을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입구에서 참여인원 통제,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의심자 발생 등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전국 지자체가 엄선해서 추천한 건강한 먹거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에 많은 시민 여러분이 발걸음 해주셔서 농가 돕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이철우 도지사, 전남도청 취임 후 첫 공식 방문

재정분권, 2050 탄소중립, 과학기술, 섬 주권 등이 담긴 합의문 체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전남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형 연구시설 유치, 섬 주권 강화,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이 담긴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전남도청 방문은 2019년 12월 11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경북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양도지사는 제18·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지방살리기 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7개 시군을 대표해서 장유현 영주시장과 김홍식 목포시장, 새롭게 자매결연 의향을 체결하기 위해 전찬걸 울진군수와 최형식 담양군수가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경북 출신 목포대 임한규·박용서 교수와 기업인 ㈜서진로지택 손병기 사장, ㈜SLL 오웅필 부회장, ㈜에스제이금속 김종배 이사, (주)코리아하이테크 장현식 사장 등이 입장을 같이하면서 민간차원의 상생협

력도 돈독하게 했다.

그동안 경북과 전남은 동서화합천사 프로젝트 등 10개 상상협력 과제 추진으로 문화·관광, 생활체육, 청소년 교류 등에서 민간차원의 우애를 다져왔다. 특히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채택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평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공동의 대응으로 1,4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인구 소멸위험지역이 가장 많이 있는 두 광역단체가 특별재정 지원이 담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고 정책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로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부동산 교부세 교부 기준 변경 ▷지역자원시설세(원천세) 확보 ▷공중산업 육성 공동 협력 ▷보건환경 정보·정책 공유 및 역량 강화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 강화 등 총 6개 과제를 채택하고 상생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동 유튜브' 제작, '탄소중립 숲 조성'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기 작은 실천운동'을 공동 협력하고 가동중인 원자로 총 17기(경북11, 전남6)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연간 1,880억원(경북1,450 전남430)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호남은 단순한 교류와 상생을 넘어서 대한민국 남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축의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린뉴딜과 AI 등 제4차 산업혁명 주력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때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경북과 전남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남도청 1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특강과 상생토크 시간을 가지고, 국민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여수 해양관광벨트 등을 견학하였다.

김세기기자

올해도 케이푸드(K-food) 대표식품 김치 열풍은 계속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월 25일 오후 충청북도 보은군에 소재한 김치 수출 중소기업 ㈜이킴(20년 15백만불 수출, 김치 수출업체 중 2위)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작년부터 김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치 수출업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김치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지난해 우리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던 배경에는 발효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우리 식품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라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김치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김치 수출업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김치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널리 알려져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향산화 효과, 면역력 증진 등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김치의 우

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왔다.

또한 중소 김치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수출용 김치 제품의 포장디자인 개선, 인증 취득, 비건김치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식품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소비저변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0년 김치 수출은 역대 최고치(144백만불)를 기록하였으며, 금년 4월 누계 수출액은 61.1백만불로(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일본 뿐 아니라 유럽과 신남방 지역으로도 김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도 김치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김치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산 김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김치의 가능성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



이다. 김현수 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김치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되어 안전하며, 해외에서 생산되는 김치와 차별화되는 대한민국 김치만의 효능과 안전성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30개사 온라인 해외투자유치·비즈니스 지원...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1년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 한다.

이번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차수별 10개사, 총 30개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들에게는 개별 온라인 홍보관 구축과 해외 및 외부기업과의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지사,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새싹 기업으로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이다.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온라인 행사장을 구축하고 상호 기업정보 영상공유와 실시간 비즈니스 채팅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도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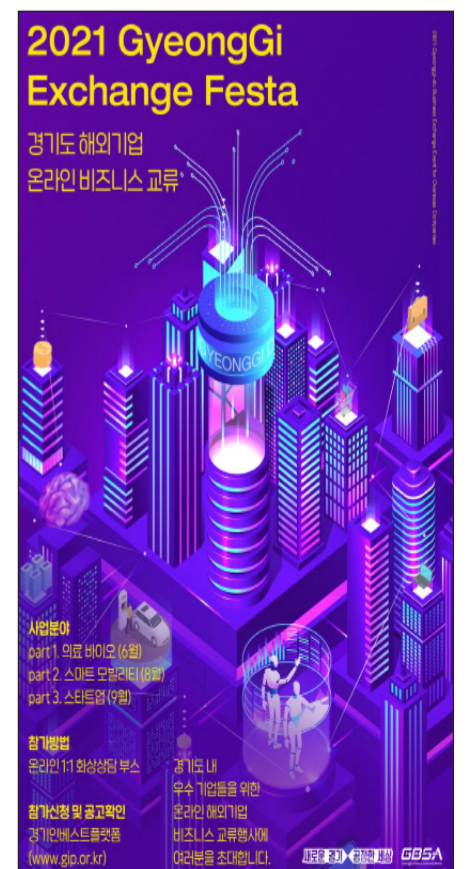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한국의 주요산업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인 ▲의료바이오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주제로 6월부터 총 3회에 걸쳐 분야별 미팅을 지원하며, 도내 기업은 차수별 최대 10개사에게 개별 온라인 홍보관 부스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당 세 차례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 사업'은 ▲해외기업 비즈니스 교류 사업을 필두로, 예스21과 라트비아 지역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발틱기업지원센터와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구성 돼 있다.

도는 5월 말부터 1차 행사인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인베스트플랫폼 또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2021 해외기업비즈니스 교류사업(Gyeonggi Exchange Festa)'에 사전 신청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해외기업비즈니스 교류사업 운영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근수기자



전국 최초 청소년 댄스 배틀 '고등팝퍼' 개최

대한민국 최고의 고등댄서를 찾아라!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이 전국 최초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 '고등팝퍼' 최종결승전을 5월 29일 오후 5시 관

악아트홀에서 진행한다. '고등팝퍼'는 고등학생 팝핀 댄서 자리를 놓고 겨루는 댄스 배틀 프로젝트다. 지난 4월 치열한 예선전을

뚝고 올라온 4명의 고등학생 댄서들이 관악아트홀 무대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날 무대는 고등팝퍼 베스트 16인의 쇼케이스 공연을 시작으로, 최종결승전 댄스 배틀 순으로 이어진다. 심사위원은 세계 팝핀 대회 1위 댄서 호안(HOAN), 제이지(JAYGEE), 은지(EUN.G) 등 스트리트 댄서들 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의 저지쇼(Judge Show), 멘토단 쇼케이스 등 다채로운 스트리트 댄스 공연이 이어진다.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활성화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프로젝트 '고등팝퍼'는 팝핀 세계대회 챔피언 강도균(이모셔널라인)과 관악문화재단의 공동 기획·제작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선전은 길거리에서 진행된 즉흥 댄스 배틀로 댄스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최종결승전은 관악아트홀에서 공개 무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연 티켓은 오픈 하루 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관악문화재단은 지난 해 '자치구 문화예술 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일

환으로 현대무용가 김설진을 비롯한 스트리트 댄서들과 함께 '스토리 인 관악'을 기획하여 춤을 매개로 관악의 일상적 풍경을 담은 무용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빈센조', '스위트홈', '댄싱9'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현대무용가 김설진(연출)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화제를 모았다.

올해 재단은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 '스토리 인 관악 시즌2'를 기획했다.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는 "청소년 대상의 스트리트 댄스 프로젝트 '고등팝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브랜드 콘텐츠로 확장시켜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공연은 전 좌석 거리두기로 운영한다.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연장 전체 방역,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참석자 최소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은 재단 누리집에서 무료로 예매 가능하다.

전순희/기자

'보이스4' 메인포스터 2종 첫 공개!

송승헌-이하나 극한의 긴장감 200%!



tvN '보이스4' 원칙주의 형사 송승헌과 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의 골든타임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메인 포스터 2종이 공개됐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측이 26일 절박한 상황 속 극한의 긴장감을 200% 담아낸 메인 포스터 2종을 첫 공개했다.

'보이스4'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

시즌4에서는 초정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하면서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궁지에 몰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형사의 새로운 골든타임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첫번째 포스터는 짙은 어둠과 빨간 색감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기 위한 송승헌, 이하나의 절박함을 형상화했다.

그 중에서도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이하나와 동일한 초정력 능력을 가진 빌런. 한 손에 양날 도끼를 든 빌런의 다크한 블랙 포스가 돋보이는 가운데 그가 극중 미스터리의 핵으로 등판을 예고한다.

각종 코드 제로 사건과 전 시즌을

뛰어넘는 최고치 능력의 빌런에 맞서 더욱 치열하고 통쾌하게 해결해 나갈 두 사람의 골든타임 공조 시너지가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이와 함께 공개된 두번째 포스터는 사운드 음파 이미지를 활용해 시선을 모은다. 특히 송승헌은 사건을 꿰뚫는 눈과 날카로운 감으로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를, 이하는 생명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는 보이스 프로파일러를 디테일하게 그려냈다.

거친 현장에서 팀원들을 진두지휘하는 송승헌의 카리스마, 범인의 작은 흔적과 피해자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이하나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 눈길을 끈다.

tvN '보이스4' 제작진은 "메인 포스터를 통해 '보이스'의 핵심 주제이자 의미인 '놓치지 말아야 할 소리'를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며 "긴박한 상황에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송승헌, 이하나의 고군분투가 극의 몰입과 흥미를 높일 예정이니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는 오는 6월 18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현유주/기자

가수 민수, 신곡 '헬시 푸드' 발매...평키한 디스코 풍

가수 민수가 26일 오후 6시 싱글 '헬시 푸드(Healthy Food)'를 발매한다.

지난 싱글 '미니홈' 발매 이후 약 1년 만이다. R&B 솔 가수 자이언티의 작업 동료인 박준우 프로듀서와 민수의 첫 협업물이다. 청순하고 자연스런 민수의 이전 곡들과는 다른 분위기의 댄서블하고 평키한 디스코 풍이다.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 사운드는 "건강한 음식들을 가사에 담았다. 기존 곡과는 달리 영어가사다. 글로벌 K팝 팬들에게도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는 백예린, 자이언티, 선우정아 등 음악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뮤지션들과 작업해온 호빈 프로덕션이 지휘했다.

민수는 2016년 제27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2018년 데뷔했다. 솔로 활동 뿐 아



나라 다양한 방식으로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특히 2019년 공개한 '민수는 혼란스럽다'가 크게 히트하면서 마니아 층을 구축했다. 동료

뮤지션 문선(MOONSUN)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 'moi'로도 활동 중이다.

최재은/기자

피원하모니, '롤링스톤' 라이브 출연...K팝 최초

그룹 '피원하모니'(P1Harmony)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롤링스톤 라이브에 출연한다.

피원하모니는 오는 26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미국의 음악 전문 매거진 '롤링스톤'(Rolling Stone)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세션 '스페셜 롤링스톤 세션 온 트위치'(Special Rolling Stone Session on Twitch)에 출연한다.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롤링스톤 공식 트위치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는 롤링스톤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K팝 아티스트 공연이다. 롤링스톤은 피원하모니의 신인답지 않은 실력과 북미 팬들에게 떠오르고 있는 K팝 루키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에 이들의 출연이 성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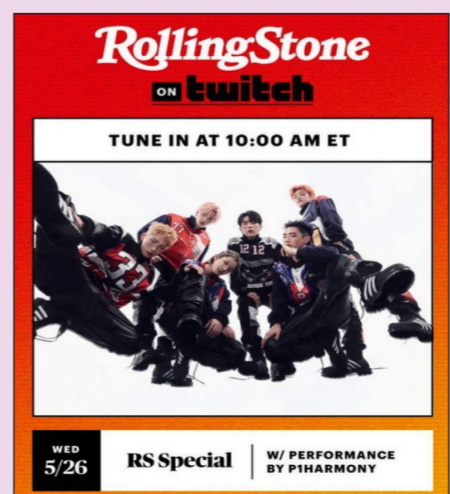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1시간 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피원하모니는 앨범 수록곡의 라이브 공연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글로벌 음악 팬들에게 인사할 예정이다.

전원 2000년대 생으로 이루어진 그룹인 만큼 MZ세대들의 공감을 끄는 메시지를 독창적인 퍼포먼스와 음악에 녹여 선보일 계획이다.

피원하모니는 지난 4월 '디스하모니'(DISHARMONY) 연작의 두번째 앨범인 '디스하모니 : 브레이크 아웃'(DISHARMONY : BREAK OUT)을 발표하고 타이틀곡 '겁나니(Scared)'로 활동했다. 미식축구를 모티브로 한 강렬한 퍼포먼스와 탄탄한 기본기로 매 무대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판 보그, 얼루어, 빌보드 등 북미 유수 매거진의 조명을 받은 데 이어 해당 앨범의 조동 판매량이 지난 데뷔 앨범 대비 6배 증가하며 차세대 K팝 루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최광수/기자



서인국·박보영 '멸망' 150개국 선판매



미주 및 유럽을 커버하는 OTT인 Viki(미국, 캐나다, 브라질, 칠레,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를 비롯해 PCCW가 운영하는 동남아 최대의 OTT인 Viu(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U-NEXT(일본), iQIYI(대만), 그리고 홍콩 지상파 채널 NOW TV에 방영권이 팔렸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한류전문 채널 넷트 재팬(Mnet Japan)을 통해서도 하반기 중 첫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첫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는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존재 '멸망'과 사라지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건 계약을 한 인간 '동경'의 아슬아슬한 목숨담보 판타지 로맨스다.

박보영과 서인국의 호연, 권영일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 그리고 참신한 소재가 합쳐 호평을 받고 있다.

Viki 관계자는 "글로벌 팬들은 특히 서인국 배우가 연기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인 '멸망' 캐릭터와 박보영 배우가 맡은 '동경' 캐릭터 사이의 로맨틱한 텐션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며 "'도깨비', '호텔 델루나'와 같은 기존 tvN 판타지 로맨스 장

르물처럼 커다란 팬덤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김도현 CJ ENM 해외콘텐츠 사업국장은 "'멸망'은 첫 방송 전부터 해외 수많은 파트너사들의 러브콜을 받는 등 방송 전부터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tvN 드라마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박보영과 서인국이 애뜻한 빙속 키스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치명적인 설렘을 전파했다. 하지만 이내 서인국이 돌연 사라져 버리는 엔딩이 그려져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25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이하 '멸망') 6화는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4.1%, 최고 4.8%, 전국 가구 기준 평균 3.3%, 최고 3.9%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2.6%, 최고 3.1%, 전국 평균 2.2%, 최고 2.5%를 기록, 수도권과 전국 모두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현유주/기자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가 해외 150여개국에 선판매됐다.

26일 tvN에 따르면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영문 타이틀 Doom at Your Service)는 전 세계 150여개국에 선판매됐다.

'나만 알고 싶은 완소' 싱어송라이터 모트, 3년만의 EP 앨범 '소중함에 대하여' 5월 27일 정오 발매



'나만 알고 싶은 완소' 싱어송라이터 모트가 정규 1집 이후 3년만에 EP '소중함에 대하여'를 5월 27일 정오에 발매한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 '논알콜'은 술을 즐기지 않는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 담긴 풋풋한 노랫말과 함께 트렌디한 '트랩(trap)' 리듬과 '로파이(lo-fi)' 사운드를 결합시켜 흡사 '싱잉랩'을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곡이다.

이 외에도 잔잔하면서도 그루브 넘치는 R&B곡 '낮잠', 수줍게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낸 포크 넘버 '모닥불' 등 총 6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이 앨범은 모트만의 풋풋한 감성이 가득 담겨 있다.

모트는 이번 앨범으로 높은 음악적 역량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통해 팬들과 직

접적인 소통에 나선다.

500만 글로벌 케이팝 유저를 위한 플랫폼 '후즈팬'을 운영하고 있는 한터 글로벌과 손잡고, 예약 구매와 각종 특선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1020세대들에게 활발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모트는 어쿠스틱과 전자음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팝과 록, R&B의 경계를 허무는 세련된 멜로디와 리듬 감각, 그리고 젊음의 고민과 감성을 자극하는 친밀한 노랫말로 대중과 평단의 관심을 동시에 받아왔다.

웹 드라마 '에이틴'의 OST였던 '도망가자마'(2018), 음악적 재능을 본격적으로 담은 정규 1집 '사이'(2018), 이후 발표된 'Room-ie'(2019), '시차'(2020), 최근작 '산책'(2021)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전순희/기자